

발행처	인민신문사
발행일	월요일
발행시간	오전 8시
발행량	1만 5천부
구독료	연 10만원
판매처	인민신문사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
전화	(02)267-8577
팩스	(02)279-1270
경북	경주시 석정동707 (0541-4132)
인쇄	인민출판사

총장 직선

‘동국발전 시금석’

교수·학생·직원 3자합의정신 구현

총장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李瑞雨·경찰 행정학)가 지난13일 구성됨으로써 본격적인 교수직선총장 선거체제로 돌입했다.

서울캠퍼스 10개단대(야간강좌 제외), 경주캠퍼스 6개단대에서 4인씩 모두 16명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 교수회의실에서 1차 선관위 모임을 갖고 위원장에 李瑞雨(경찰행정학), 간사에 朴巨惠(수학·서울캠퍼스), 崔鍾世(중어중문학·경주캠퍼스)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또한 이날 1차 선관위 회의에서는 △후보자등록은 지난17일부터 오는20일 오후5시까지 선관위에서 접수하고 △공정회는 오는25일 경주에서, 오는27일 서울에서 각 1회씩 개최하며 △총장선거는 다음달 13일 오후2시 동국관(L301)에서 실시기로 최종결정했다.

이와함께 이번 총장직선출을 앞두고 바람직한 총장선출의

정기마련과 각주체 의사수렴의 틀마련을 위해 교수·직원·학생의 3자연석회의가 구성돼 각주체간의 참여 및 감시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3차례 걸친 논의가 진행되면서 3자 합의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3자 연석회의는 이후 학교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범적 사례들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3자연석회의에서는 이번 총장선거에 임하면서 “3주체간의 공동합의에 의해 진행된 것이며, 이에 반대하는 어떠한 세력에도 단호히 공동대처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당초 의문시했던 3자연석회의의 합의사항이 선관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원장이 본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3자연석회의의 합의사항을 선관위가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힘으로써 이번 선거에서 3자 연석회의의 발전가능성을 점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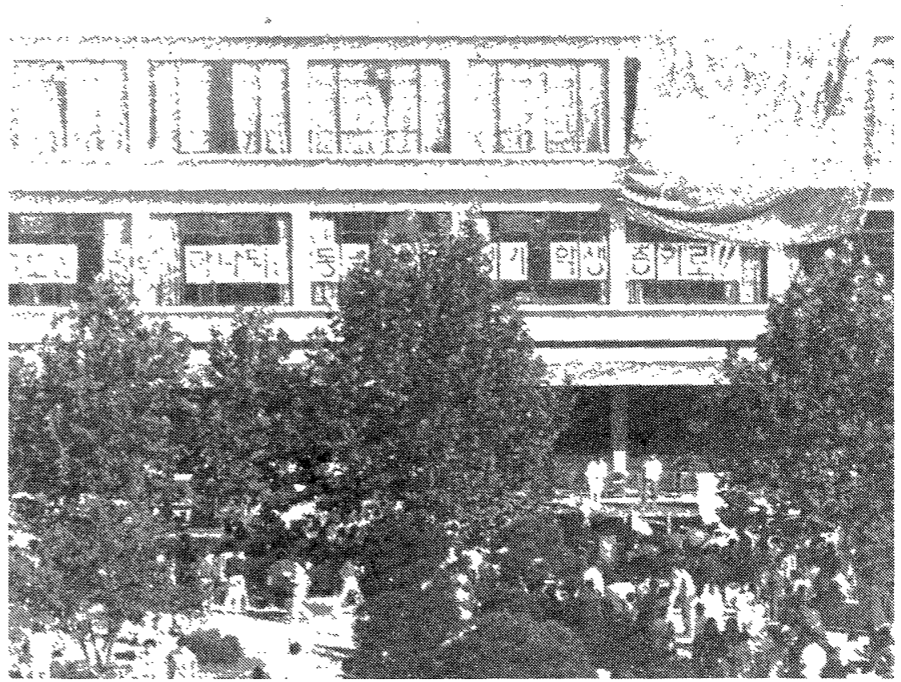
수있겠다. (관련 인터뷰7면)

이에따라 학생측이 주장한 △총장후보자적 요건중 본교 10년이상 재직교수를 5년으로 축소하는것과 △선거날짜를 20일로 연기하는 것등의 문제는 3자연석회의에서 ‘후보자적요건은 지난해에 준한다’와 ‘선거날짜는 13일로 결정한다’에 공동합의하고 선관위에서 이를 수용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또 3자연석회의는 오는 25일, 27일 양일간 경주 서울에서 개최된 공정회에 대해서도 지난해 실시했던 공정회에서 드러난 후보소선포시 타후보의 인신공격에 치중하는 등 후보자의 기본적 소양이 부족했던 점을 비판하고 이에대한 대응방안을 3자가 서로의 입장을 정리, 오늘(19일) 다시 만나 수용기로 했다. 그러나 3자연석회의의 위상에 관해서는 합의사항을 교수회가 평교수들에게 구체적이고 확고하게 집약해서 전달할 수 없도록 한계점과 학생

회측이 하부단위의 지속적인 체계적인 논의없이 학생대중과 유리된 상층교직원만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상층중심의 사업작업에 관한 문제점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이제 총장선거를 앞두고 동국의 모든 눈은 3자연석회의와 선관위에 집중되어있다. 교수회의 집약된 논의와 총학의 대중적인 논의의 체계마련이 시급하다.



본교 주차난 심각

학생과는 교정을 쾌적한 캠퍼스로 만들기 위해 각 건물별 주차현황과 학생 및 외부차량 출입 통제에 대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학생들의 휴식공간과 강의동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교내 진입 차량의 소음때문에 면학분위기가 흐려질 뿐 아니라, 피속차량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이를 위해 학생차는 직원차량에는 스티카 부착(70% 부착완료)과 서행추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학생차 발표의 주차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교내의 합리적인 최저 주차면적은 228대 분인데 반해, 현교직원차량 보유대수는 261대에 이르러 승용차 33대의 주차면적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생차량의 무질서한 통행과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요구되고 있다.

‘민족의학’강연회

본교 민족의학연구회 주최 ‘민족의학’초청강연회가 지난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동국관(L101)에서 열렸다.

전통적 민족의학에 대한 재인식과 이에 관한 동학인의 관심과 노력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초청강연회는 황인태(다승한의원의원)씨를 비롯한 4명의 초청강사를 초빙해 한의학, 요가, 사상의학등에 관한 연구 발표를 가졌다.

교수동성

▲李載昌(불교학) = 제11회 아시안 정기 임원 참가자.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북경 체류예정.

▲朱宗桓(농업경제학) = 동아시아제국의 농업구조 문제에 관한 국제 학술회에 참가하기 위해 다음달 23일부터 30일까지 일본에 체류예정.

하반기 정투·학자투 결의

민총선거위한 대중투쟁 호소

서울 학생총회 무산... 총학 불신

서울캠퍼스 제2학기 정기학생총회가 지난 18일 오후2시 도서관앞에서 ‘회칙개정결의’2학기 정투제시, ‘민총선거결의’를 주안점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투 2건에 결의 못미치는 8백명만이 참가, 총회가 무산되면서 교수·직원·학생 투쟁결의대회로 전락해 2학기 학생회의에 막구름이 일고있다.

총 4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 1부는 부총학생회장 이진환(경영4)군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총학생회장 권오

철(화학4)군은 “2학기 학자투 최대관건인 민주총장선출을 위해 동학의 모든 주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칙개정안 보고에서 대중의장 김성준(국문4)군은 “지난 회칙이 형식적이고 기구별위상과 역할이 모호하며 3월 선거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학사대표회의의 권한 강화 △학생회 간부의 소환 및 파면권 강화 △ 학자투위원회와 학부위를 총학생회 산하기구로 명문화할것등을 주내용으로 하

는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또한 2학기정투투쟁방향에 대해 정투위원장 김성준(경영4)군은 “20일의 전대협 총투기와 22일의 국민대회를 통해 하반기 노정권타도투쟁을 전개하자”고 말했다.

2부는 “교수·학생·직원 하나 되어 민족의 총장선거 쟁취하자”는 제목으로 민족학연구회·탈당 동원집체 등이 공연했다.

이어 총장선거 결의를 다지기 위해 3주체가 참가하는 3부 순서는 교수회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학자투위원장 박정규(국문4)군의 사회로 진행됐다.

각 주체의 ‘민총선거에 대한 입장발표’에서 ‘민총선출을 위한 학생 대대회의’위원장 박성식(사학3)군은 “더이상 상층교섭보다는 대중적 하부논의가 필요하다”며 “학자투의 깃발은 여러분 각자의 손에 의해 명진 판에 꽃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직원측의 문옥래(학공4) 노조위원장은 “이번 부당선거 철폐투쟁에서 서리체제의 한계를 느꼈다”며 △반드시 민주총장선출을 시수해야 한다

는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또한 2학기정투투쟁방향에 대해 정투위원장 김성준(경영4)군은 “20일의 전대협 총투기와 22일의 국민대회를 통해 하반기 노정권타도투쟁을 전개하자”고 말했다.

2부는 “교수·학생·직원 하나 되어 민족의 총장선거 쟁취하자”는 제목으로 민족학연구회·탈당 동원집체 등이 공연했다.

이어 총장선거 결의를 다지기 위해 3주체가 참가하는 3부 순서는 교수회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학자투위원장 박정규(국문4)군의 사회로 진행됐다.

각 주체의 ‘민총선거에 대한 입장발표’에서 ‘민총선출을 위한 학생 대대회의’위원장 박성식(사학3)군은 “더이상 상층교섭보다는 대중적 하부논의가 필요하다”며 “학자투의 깃발은 여러분 각자의 손에 의해 명진 판에 꽃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직원측의 문옥래(학공4) 노조위원장은 “이번 부당선거 철폐투쟁에서 서리체제의 한계를 느꼈다”며 △반드시 민주총장선출을 시수해야 한다

사법2차·군법무관에 6명 합격

예년 보다 합격자 늘어

지난5일 총무처에서 발표한 제2차(32회) 사법고시와 9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서 본교 라병용(법학83학) 등문과 황병희(법학80학번) 등문과 각각 3명씩 총6명이 합격했다.

예년에 비해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올해 2차사법고시와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지난7월에 실시되었고 3차면접시험은 오는10월23일부터 25일까지 사

보수

몇해 전 여름 미국의 하와이대학 캠퍼스에서 우연히 독일인 민속학을 공부하는 독일인 교포 2세를 만났다.

필자가 만난 바로 전날 연변에서 우리 고유한 민속과 풍속 문화 자체가 그대로 고스란히 살육에 숨쉬고 있는 현장을 실고 온 그는 무척 감회에 어린 장기간 열광로 나를 대하었다.

그 날은 마치 하와이대 동서문화 연구소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지위”에 대한 운동을 펴고 있는 일본대 한국인 2세교수의 강연회가 있기도 했다.

연변에서 막 은 교포는 그 지난 봄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4천만이 사는 모국의 생활풍토와 그 어렴수도 안되게 사는 연변 풍토의 삶의 풍속은 참으로 대조적이라 말하며 다소 흥분 하였다.

(저글이 개방의 물결 맞인지 연변교포들의 생활도 많이 변했지만) 그 내용인즉 수천년 문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길로

함께 그 민족학을 공부하던 독일교포의 얘기를 떠올리는 것은 독일의 길로 다 들어선 독일인 날이 아닌 정 말로 백성의 가슴마다 동인의 피가 생기는 열정으로 확인되는 남북의 어떤 풍토가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평양에서 있을 남북 총리 회담이 현상의 에드빌을 띄우는 그런 만남이 아닌 진정한 하나되는 민족이 사는 길의 단초가 되길 믿어본다. 如然

데 남의 나라의 옷을 입고

남의 나라의 의복의 사교로 어떻게 한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인 단초를 풀이 낼 수 있을까.

정치, 경제 다각적인 창구를 통하여 파벌을 없애고 틀을 깨우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길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 전통문화의 바탕으로 이민은 민족정서의 공감대를 보다 건강하게 형성해서 같은 핏줄의 슬겔로 합쳐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를 추측하는 데는 그냥 민족의 날로 하루 이를 적당히 쉬고 한복 영겨주축하게 입고 자가용타고 누비는 그런 형식적인 날이 아닌 정 말로 백성의 가슴마다 동인의 피가 생기는 열정으로 확인되는 남북의 어떤 풍토가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평양에서 있을 남북 총리 회담이 현상의 에드빌을 띄우는 그런 만남이 아닌 진정한 하나되는 민족이 사는 길의 단초가 되길 믿어본다. 如然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남녀수습기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땅에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대학생활을 접해보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다른 학우들과 함께 나눠 보십시오. 동대신문사는 참신한 90학번 여러분께 이런 공간과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서접수가 내일(20일) 오후4시로 마감됩니다.

- ◆모집인원: 서울캠퍼스 00명
- ◆응시자격: 1학년 남녀 재학생
- ◆모집분야: 일반 및 사진기자
- ◆제출서류: 본사 조정양식1통, 명함판사진 1매 (지침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
- ◆시험일자: 9월20일 오후5시
- ◆시험과목: 1차 필기-국어, 상식, 작문, 2차면접-1차시험합격자에 한함
- ◆원시제출처: 본사총무부
- ◆시험장소: 학림관(J201)
-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소정의 급료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社說

선거결과 전연 퇴각기 앞다

교수직선 총장선거를 25일 남겨둔 현재 '민주 직선'이라는 낙관론과, '제단의 향방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될수도 있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결정자인 제단이나 학교 행정당국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민주적 총장선거의 대의가 또한번 깨지는 양상을 우려가 된다.

본교 설립 이래 처음으로 성사될 이번 교수직선총장선거는 지난 2월16일 제단의 일방적 총장선거 선출로 인한 선거패배의 쓰라린 경험을 분명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운영권자인 제단에서 선거결과에 대한 수습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지난 선거패배의 악몽이 또다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교수회는 제단에 선출후보2인중 최다득표자를 총장으로 임명해 준것을 확약받아야 하며, 그랬을때만이 민주선거의 대의를 살릴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총장선거는 지난날 제단이사회의 의상에서 "총장이 있는데 교수회 총장선거가 무슨말이냐"며 제단이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며, 학교당국에서는 총장선거 기간을 총장제임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에 관한 해석으로 이번 선거가 12대나 13대나 담면 요정을 제단에 요구했다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12대나 13대나도 중요하지만, 각 주체간의 화합에 의하여 어떻게 민주총장을 선출하느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제단에서 낙첨할지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선관위는 지난13일 꾸러져 오는2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총장선출시까지 활동하게 된다. 선관위는 교수·학생·직원 3자 연석회의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 학내 각 구성원들은 민중선거를 위한 총의를 모으기를 결의하고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수회는 학교당국과 제단을 추동하고 화해하는 대중적 역량 강화를 꾀하며 노조에서는 선거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총장선거가 갖는 의미는 전대 학인의 화합의 장이며 도약의 발판이라는 시금적이다. 특히 대학의 최고운영권자인 제단은 지혜를 모아 상식적으로 이번 선거가 진행될수 있도록 온갖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내각제 음모, 총단결로 저지해야

지난10일 민자당간의 정국교섭이 개회되었다. 예년보다 2달정도 앞당겨 개최된 이번 정국교섭은 극심했던 수해의 여파와 페르시아인사태에 따른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 그리고 10월에 있을 남북고위급2차회담의 많은 짐을 안고 있다. 이번 정국교섭을 바라보는 여론은 "평민당의 등원조건" "마후철상" 등의 시각으로 평민당의 참여를 은근히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본질을 벗어난 논의들은 현재 국내의 정치상황을 볼때 절뚝한 것이라 할수 밖에 없다.

정국교섭에서 논의될 주경연안안 심의에서 우리정부는 대미방위비분담요구를 들어 줄 것이라 한다. 또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정부산하기구로 군비통제연구위원회를 두고도 신인교섭팀도 없는 군사비의 증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 우후쿠라몬드드림상을 둘러싼 정부의 소극적 움직임과 야권통합을 저지하고 내각제개헌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현정권의 음흉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현재 우리는 수해지역에서, 전국농촌에서,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에서, 그리고 정당 노동자들의 파업을 공권력으로 짓밟는 노동현장에서 들리는 민중의 외곡에 귀기울여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더이상 안으로는 민중들의 생존권적 요구들을 짓밟고 밖으로는 평화를 옹호하고 통일을 하려는 것처럼 위장하는 현정권의 본질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이점이 있어 이번 정국교섭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민주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을 무력화시켜줄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고리이다.

민자당은 이번 정국교섭을 통해 앞서 언급한 심각한 현안과 지난 입사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법안을 묻어놓고 정국교섭을 위한 내각제개헌논의를 전연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민자당의 내각제개헌음모를 사전에 파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세력의 총단결과 연대투쟁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는 20일의 정국교섭개회와 아울러 전대 앞에서 상향하고 있는 집회에서는 대중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이해와 요구를 담아 힘있게 밀어내야 할 것이다.

그렸을때 무차별적인 탄압에서 위축되고 있는 노동운동들을 보우할수 있을 것이며 민주민주운동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지난5월19일 전국에서 울렸던 외침을 다시한번 크게 외칠 때이다. "퇴진/노태우, 해체! 민자당"이라고.

東國漫評



김지성

우리나라 제정의 '기술개발'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개발사업이나 복지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 있다. 91년도예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산규모를 90년대비 28.3% 확대했으나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 예산팽창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여러 신규사업을 약간의 증액에 그치지나 어떤 사업은 말뿐이고 실제예산에는 한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은 해마다 당치는 임정나게 커지고 있으나 신축적으로 조절할수 없는 경쟁성경제 때문에 반산불수의 상태에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는 더 많은 납세부담을 강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발·복지사업은 말뿐인 기만적 예산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일별하자.

먼저 예산규모 내년도예산은 올해보다 19.5%가 늘어난 27조5천2백억원이라고 하나 여기에 신설될 2조원규모의 지방양여제(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재원인 국세수입의 일부를 일반회계를 통하여 않고 바로로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제 제도)를 합치면 총예산규모는 약 29조원에 달한다. 실제 예산팽창율은 28.3%에 달한다. 사실상 중앙정부 수입인 국세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넘겨 일반회계에서 제외시켜 특별회계로 처리하는것은 예산팽창율을 낮추기위한 편법이란 지적도 없지않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시킨 이유를 ①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방재정확충을 ②사

회보안건설(특히 교통난해소)③ 기술개발 ④우후쿠라몬드드림을 늘려도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개발사업이나 복지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 있다. 91년도예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산규모를 90년대비 28.3% 확대했으나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 예산팽창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여러 신규사업을 약간의 증액에 그치지나 어떤 사업은 말뿐이고 실제예산에는 한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은 해마다 당치는 임정나게 커지고 있으나 신축적으로 조절할수 없는 경쟁성경제 때문에 반산불수의 상태에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는 더 많은 납세부담을 강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발·복지사업은 말뿐인 기만적 예산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일별하자.

먼저 예산규모 내년도예산은 올해보다 19.5%가 늘어난 27조5천2백억원이라고 하나 여기에 신설될 2조원규모의 지방양여제(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재원인 국세수입의 일부를 일반회계를 통하여 않고 바로로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제 제도)를 합치면 총예산규모는 약 29조원에 달한다. 실제 예산팽창율은 28.3%에 달한다. 사실상 중앙정부 수입인 국세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넘겨 일반회계에서 제외시켜 특별회계로 처리하는것은 예산팽창율을 낮추기위한 편법이란 지적도 없지않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시킨 이유를 ①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방재정확충을 ②사

회보안건설(특히 교통난해소)③ 기술개발 ④우후쿠라몬드드림을 늘려도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개발사업이나 복지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 있다. 91년도예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산규모를 90년대비 28.3% 확대했으나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 예산팽창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여러 신규사업을 약간의 증액에 그치지나 어떤 사업은 말뿐이고 실제예산에는 한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은 해마다 당치는 임정나게 커지고 있으나 신축적으로 조절할수 없는 경쟁성경제 때문에 반산불수의 상태에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는 더 많은 납세부담을 강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발·복지사업은 말뿐인 기만적 예산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일별하자.

먼저 예산규모 내년도예산은 올해보다 19.5%가 늘어난 27조5천2백억원이라고 하나 여기에 신설될 2조원규모의 지방양여제(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재원인 국세수입의 일부를 일반회계를 통하여 않고 바로로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제 제도)를 합치면 총예산규모는 약 29조원에 달한다. 실제 예산팽창율은 28.3%에 달한다. 사실상 중앙정부 수입인 국세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넘겨 일반회계에서 제외시켜 특별회계로 처리하는것은 예산팽창율을 낮추기위한 편법이란 지적도 없지않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시킨 이유를 ①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방재정확충을 ②사

회보안건설(특히 교통난해소)③ 기술개발 ④우후쿠라몬드드림을 늘려도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개발사업이나 복지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 있다. 91년도예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산규모를 90년대비 28.3% 확대했으나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 예산팽창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여러 신규사업을 약간의 증액에 그치지나 어떤 사업은 말뿐이고 실제예산에는 한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은 해마다 당치는 임정나게 커지고 있으나 신축적으로 조절할수 없는 경쟁성경제 때문에 반산불수의 상태에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는 더 많은 납세부담을 강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발·복지사업은 말뿐인 기만적 예산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일별하자.

먼저 예산규모 내년도예산은 올해보다 19.5%가 늘어난 27조5천2백억원이라고 하나 여기에 신설될 2조원규모의 지방양여제(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재원인 국세수입의 일부를 일반회계를 통하여 않고 바로로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제 제도)를 합치면 총예산규모는 약 29조원에 달한다. 실제 예산팽창율은 28.3%에 달한다. 사실상 중앙정부 수입인 국세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넘겨 일반회계에서 제외시켜 특별회계로 처리하는것은 예산팽창율을 낮추기위한 편법이란 지적도 없지않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시킨 이유를 ①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방재정확충을 ②사

회보안건설(특히 교통난해소)③ 기술개발 ④우후쿠라몬드드림을 늘려도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개발사업이나 복지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 있다. 91년도예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산규모를 90년대비 28.3% 확대했으나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 예산팽창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여러 신규사업을 약간의 증액에 그치지나 어떤 사업은 말뿐이고 실제예산에는 한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은 해마다 당치는 임정나게 커지고 있으나 신축적으로 조절할수 없는 경쟁성경제 때문에 반산불수의 상태에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는 더 많은 납세부담을 강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발·복지사업은 말뿐인 기만적 예산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일별하자.

먼저 예산규모 내년도예산은 올해보다 19.5%가 늘어난 27조5천2백억원이라고 하나 여기에 신설될 2조원규모의 지방양여제(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재원인 국세수입의 일부를 일반회계를 통하여 않고 바로로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제 제도)를 합치면 총예산규모는 약 29조원에 달한다. 실제 예산팽창율은 28.3%에 달한다. 사실상 중앙정부 수입인 국세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넘겨 일반회계에서 제외시켜 특별회계로 처리하는것은 예산팽창율을 낮추기위한 편법이란 지적도 없지않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시킨 이유를 ①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방재정확충을 ②사

회보안건설(특히 교통난해소)③ 기술개발 ④우후쿠라몬드드림을 늘려도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개발사업이나 복지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 있다. 91년도예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산규모를 90년대비 28.3% 확대했으나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 예산팽창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여러 신규사업을 약간의 증액에 그치지나 어떤 사업은 말뿐이고 실제예산에는 한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은 해마다 당치는 임정나게 커지고 있으나 신축적으로 조절할수 없는 경쟁성경제 때문에 반산불수의 상태에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는 더 많은 납세부담을 강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발·복지사업은 말뿐인 기만적 예산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일별하자.

먼저 예산규모 내년도예산은 올해보다 19.5%가 늘어난 27조5천2백억원이라고 하나 여기에 신설될 2조원규모의 지방양여제(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재원인 국세수입의 일부를 일반회계를 통하여 않고 바로로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제 제도)를 합치면 총예산규모는 약 29조원에 달한다. 실제 예산팽창율은 28.3%에 달한다. 사실상 중앙정부 수입인 국세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넘겨 일반회계에서 제외시켜 특별회계로 처리하는것은 예산팽창율을 낮추기위한 편법이란 지적도 없지않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시킨 이유를 ①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방재정확충을 ②사

회보안건설(특히 교통난해소)③ 기술개발 ④우후쿠라몬드드림을 늘려도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개발사업이나 복지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 있다. 91년도예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산규모를 90년대비 28.3% 확대했으나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 예산팽창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여러 신규사업을 약간의 증액에 그치지나 어떤 사업은 말뿐이고 실제예산에는 한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은 해마다 당치는 임정나게 커지고 있으나 신축적으로 조절할수 없는 경쟁성경제 때문에 반산불수의 상태에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는 더 많은 납세부담을 강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발·복지사업은 말뿐인 기만적 예산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일별하자.

먼저 예산규모 내년도예산은 올해보다 19.5%가 늘어난 27조5천2백억원이라고 하나 여기에 신설될 2조원규모의 지방양여제(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재원인 국세수입의 일부를 일반회계를 통하여 않고 바로로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제 제도)를 합치면 총예산규모는 약 29조원에 달한다. 실제 예산팽창율은 28.3%에 달한다. 사실상 중앙정부 수입인 국세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넘겨 일반회계에서 제외시켜 특별회계로 처리하는것은 예산팽창율을 낮추기위한 편법이란 지적도 없지않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시킨 이유를 ①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방재정확충을 ②사

회보안건설(특히 교통난해소)③ 기술개발 ④우후쿠라몬드드림을 늘려도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개발사업이나 복지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 있다. 91년도예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산규모를 90년대비 28.3% 확대했으나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 예산팽창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여러 신규사업을 약간의 증액에 그치지나 어떤 사업은 말뿐이고 실제예산에는 한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은 해마다 당치는 임정나게 커지고 있으나 신축적으로 조절할수 없는 경쟁성경제 때문에 반산불수의 상태에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는 더 많은 납세부담을 강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발·복지사업은 말뿐인 기만적 예산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일별하자.

먼저 예산규모 내년도예산은 올해보다 19.5%가 늘어난 27조5천2백억원이라고 하나 여기에 신설될 2조원규모의 지방양여제(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재원인 국세수입의 일부를 일반회계를 통하여 않고 바로로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제 제도)를 합치면 총예산규모는 약 29조원에 달한다. 실제 예산팽창율은 28.3%에 달한다. 사실상 중앙정부 수입인 국세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넘겨 일반회계에서 제외시켜 특별회계로 처리하는것은 예산팽창율을 낮추기위한 편법이란 지적도 없지않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시킨 이유를 ①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방재정확충을 ②사

회보안건설(특히 교통난해소)③ 기술개발 ④우후쿠라몬드드림을 늘려도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개발사업이나 복지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 있다. 91년도예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산규모를 90년대비 28.3% 확대했으나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 예산팽창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여러 신규사업을 약간의 증액에 그치지나 어떤 사업은 말뿐이고 실제예산에는 한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내역을 보면 상하수도시설에 2,339억, 지역보조비 4,847억, 의료보조 1,730억, 생활보호대상자지원 1,436억, 수질개선에 369억원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도시시민생활향진과비는 올해 9,958억원에서 내년에는 12,150억원으로 2,192억원이 늘어난다. 영유아대주택 9,950억, 영세민주택개발 250억, 영세민 공동시설 300억, 서울·부산·대구 지하철 850억등이 주요지출내용이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교통난해소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한다면서 지하철건설지원비는 거꾸로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지하철에 1,1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내년도예산에는 850억원으로 두려 22.7%가 삭감되어 줄어든다.

상술한 다것까지 주요정책과제의 해결을 위해 내년에 대폭 예산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기술개발과 같이 실제로 예산에 반영된것은 보잘것 없고 시급한 대중교통난해소를 위한 지하철건설 지원금만 22.7%가 삭감되고 있다.

이렇게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은 경쟁성 경제(방위비, 인건비, 지방재정교부금, 교육개발교부금등)와 이와 유사한 경비가 총예산의 70%를 웃돌고 있기때문에 경직될 대로 경직된 예산구조로는 아무런 예산규모를 늘려도 신규사업을 거의 실행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또 이때문에 정부는 남발해놓은 공약을 시행할수 없게 될것이다.

국민복지비는 올해 1조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4천1백억원으로 2천1천억원이 증액되고 있다. 주요지출

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내년도예산에 한푼도 반영된것은 없다.

넷째 UR에 대비한 농촌구조개선 및 개발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농촌신설수입개발에 다른 증액보장조로 1,083억원, 수입관련구조 조정비로 764억원이 배정되어 있을 뿐이다.

다섯째 복지대비비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비는 크게 두가지로 구성되고 있다. 곧 국민복지비와 도시서민생활향진비이다.

국민복지비는 올해 1조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4천1백억원으로 2천1천억원이 증액되고 있다. 주요지출

들이 피해를 보는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아무리 돈쓰자면 돈쓰자면 시계하나라도 들어갈 전지에 쓸돈은 있을 학교교육의 무관심과 하하에 떠가는 돈을 모두 보듯이 바라보는 학생들의 무관심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우리 동약에 대해 각 개인마다 만족스런 상아탑으로 느낄수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라는 한 사회를 생각해 볼때, 더구나 우리의 생활공간이고 삶의 과정에 있어서 의 한 터전이므로 좀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우리는 흔히 남의 학교와 우리 학교를 비교할 때 비난을 한다. 그러나 '비난'보다는 좀더 관심을 갖고 '비판'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의 반대 개념이 무관심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항상 그러한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개념을 무관심해왔다.

우리 주위의 작은 것에 대한 관심부터 동약에 대한 사랑의 첫걸음이 될것이고, 우리 안의 것을 좀더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면만을 보는 색안경을 끼는 노력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문제는 이 대자보가 제대로 붙어있지 못하고 너털 너털 떨어져 있거나 기간이 지남 대자보가 새이 바래도록 붙어있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내기 하고 싶고 싶은 대자보가 내건현상에 의외로 많고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학우가 신경을 쓰자는 것이다.

물론 그것을 붙인 당사자가 신경을 더 써야 한다. 또 너털너털 해진 대자보는 써붙인 당사자가 다시 깨끗하게 써서 붙이든가 아니면 다음사람들을 위해서 수거를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다.

이런 저그마한 일들을 올바르게 처리하는것이 동약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된다면 동약은 앞서가는 대자보 문화를 가질수 있고, 그속에서 대학 문화의 꽃은 더욱 활짝 피어날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용준 (사회대 정치외교학과) 조영현 (경상대 무역학과)

국방비등 경직성경비로 예산증액 무용지물

여제도의 신설인데 이 양여제의 재원은 전회세와 교육세로 한다고 한다. 전회는 일반대중 필수품인데, 전회세를 계속 유지 증대한다는 것은 다윈리에서는 볼 수 없는 세금이고 현시세인 교육세를 계속 연장해 증대하는 것도 문제이다. 결국 안이한 증세위주의 재원조달이고 그나마 특별회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잡히지 않는 점도 한 위점수이다. 둘째로 낙후된 사회간접투자 특히 교통난해소를 위한 재원확보를 역설해 나갔는데 올해 사회간접투자본건비 1조6천3백억원이 내년에는 2조1천5백억원으로 5천2백억원 증액된

열린글터

쓰레기투성이 학교보면 답답해 작은것 소중한 여기는 지성인 돼야

나는 주위에 흔히 말하고 듣게되는 '대학생=지성인'의 논리를 믿지 않는다. 편견일지도 모르지만, 대학생들에게 지성인이라는 우월의식을 심어줌으로써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착각을 하게끔 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철시키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대학생들도 지성인이어야 한다는 하나의 규정일 뿐이며, 다른 무엇보다 아니다.

나는 지금 쓰레기 속에서 황폐해져가는 우리 학교를 보면서, 답답함과 분노를 느낀다.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 으름과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극단의 이기주의가 만연해져 있음을 괴외의 곳곳에서 본다. 신문 전열대 위에 줄지어 있는 빈 종이컵과 장물들, 심지어 도서관의 책상 위, 강의실의 책·결산과 바다, 장물들, 복도에까지 버려진 쓰레기 투성이다. 버릴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판기를 이용해 자신의 목을 축일 줄만 알았지, 뒷처리하는 전혀 관심 밖의 일이다. 공부를 할당하고 도서관과 강

의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하는 행동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면 말인가. 편견은 정의와 진리를 논하고, 하는 행동은 어떤 아이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 경쟁 대학생의 이름으로 존중해가려는 남을 비판하는 때는 가치있으면서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나 관대한 이슬베반의 논리에 중지를 찍어야 한다. 기본적인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 쓰레기는 청소하는 분들이 당연히 치워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 그분들이 쓰레기 가 가득 담긴 손수건을 끌며 힘에 겨워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월급을 받으니까 그 멧가를 충분히 하라는건가. 많은 학우들이 우리 학교의 수준을 닦하는 것을 보고 들어왔다. 그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외형적인 조건들에 의해 학교의 수준이 나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분명, 수준향상은 이원적이어야 하고 대선패들의 전통은 이어져야 한다. 인제까지나 폐배의식에서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다. 학교의 수준향상의 지름길은 전체 구성원들의 질적 향상에 있

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의식에 개혁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초현대적 건물들이 들어서고 멋지게 단장해와도 현재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소속감이 결여된 저지분한 학교가 될 것인데 틀림없다.

지금은 호저부지런 '좋은 밥' 뿐만 아니라, 깨끗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

김영석 (경상대 경영학과)

열린글터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더욱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규모 내년도예산은 올해보다 19.5%가 늘어난 27조5천2백억원이라고 하나 여기에 신설될 2조원규모의 지방양여제(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재원인 국세수입의 일부를 일반회계를 통하여 않고 바로로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제 제도)를 합치면 총예산규모는 약 29조원에 달한다. 실제 예산팽창율은 28.3%에 달한다. 사실상 중앙정부 수입인 국세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넘겨 일반회계에서 제외시켜 특별회계로 처리하는것은 예산팽창율을 낮추기위한 편법이란 지적도 없지않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시킨 이유를 ①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방재정확충을 ②사

회보안건설(특히 교통난해소)③ 기술개발 ④우후쿠라몬드드림을 늘려도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개발사업이나 복지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 있다. 91년도예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산규모를 90년대비 28.3% 확대했으나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 예산팽창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여러 신규사업을 약간의 증액에 그치지나 어떤 사업은 말뿐이고 실제예산에는 한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은 해마다 당치는 임정나게 커지고 있으나 신축적으로 조절할수 없는 경쟁성경제 때문에 반산불수의 상태에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는 더 많은 납세부담을 강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발·복지사업은 말뿐인 기만적 예산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일별하자.

먼저 예산규모 내년도예산은 올해보다 19.5%가 늘어난 27조5천2백억원이라고 하나 여기에 신설될 2조원규모의 지방양여제(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재원인 국세수입의 일부를 일반회계를 통하여 않고 바로로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제 제도)를 합치면 총예산규모는 약 29조원에 달한다. 실제 예산팽창율은 28.3%에 달한다. 사실상 중앙정부 수입인 국세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넘겨 일반회계에서 제외시켜 특별회계로 처리하는것은 예산팽창율을 낮추기위한 편법이란 지적도 없지않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시킨 이유를 ①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방재정확충을 ②사

회보안건설(특히 교통난해소)③ 기술개발 ④우후쿠라몬드드림을 늘려도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개발사업이나 복지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 있다. 91년도예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산규모를 90년대비 28.3% 확대했으나 경쟁성 경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 예산팽창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여러 신규사업을 약간의 증액에 그치지나 어떤 사업은 말뿐이고 실제예산에는 한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은 해마다 당치는 임정나게 커지고 있으나 신축적으로 조절할수 없는 경쟁성경제 때문에 반산불수의 상태에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는 더 많은 납세부담을 강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발·복지사업은 말뿐인 기만적 예산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일별하자.

먼저 예산규모 내년도예산은 올해보다 19.5%가 늘어난 27조5천2백억원이라고 하나 여기에 신설될 2조원규모의 지방양여제(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재원인 국세수입의 일부를 일반회계를 통하여 않고 바로로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제 제도)를 합치면 총예산규모는 약 29조원에 달한다. 실제 예산팽창율은 28.3%에 달한다. 사실상 중앙정부 수입인 국세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넘겨 일반회계에서 제외시켜 특별회계로 처리하는것은 예산팽창율을 낮추기위한 편법이란 지적도 없지않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시킨 이유를 ①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방재정확충을 ②사

대자보 관리문제 불인사람 책임

흔히, 대학 문화의 '대자보' 문화라 한다. 우리 동약에 예외는 아니어서 캠퍼스 구석구석에서 동창회, 학교측에서 학우들에게 알리려는 공고문, 학우들의 글씨, 각종 안내문 등 수많은 대자보가 붙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자보가 제대로 붙어있지 못하고 너털 너털 떨어져 있거나 기간이 지남 대자보가 새이 바래도록 붙어있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내기 하고 싶고 싶은 대자보가 내건현상에 의외로 많고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학우가 신경을 쓰자는 것이다.

물론 그것을 붙인 당사자가 신경을 더 써야 한다. 또 너털너털 해진 대자보는 써붙인 당사자가 다시 깨끗하게 써서 붙이든가 아니면 다음사람들을 위해서 수거를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다.

이런 저그마한 일들을 올바르게 처리하는것이 동약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된다면 동약은 앞서가는 대자보 문화를 가질수 있고, 그속에서 대학 문화의 꽃은 더욱 활짝 피어날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용준 (사회대 정치외교학과) 조영현 (경상대 무역학과)

우리는 흔히 남의 학교와 우리 학교를 비교할 때 비난을 한다. 그러나 '비난'보다는 좀더 관심을 갖고 '비판'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의 반대 개념이 무관심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항상 그러한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개념을 무관심해왔다.

우리 주위의 작은 것에 대한 관심부터 동약에 대한 사랑의 첫걸음이 될것이고, 우리 안의 것을 좀더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면만을 보는 색안경을 끼는 노력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문제는 이 대자보가 제대로 붙어있지 못하고 너털 너털 떨어져 있거나 기간이 지남 대자보가 새이 바래도록 붙어있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내기 하고 싶고 싶은 대자보가 내건현상에 의외로 많고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학우가 신경을 쓰자는 것이다.

물론 그것을 붙인 당사자가 신경을 더 써야 한다. 또 너털너털 해진 대자보는 써붙인 당사자가 다시 깨끗하게 써서 붙이든가 아니면 다음사람들을 위해서 수거를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다.

이런 저그마한 일들을 올바르게 처리하는것이 동약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된다면 동약은 앞서가는 대자보 문화를 가질수 있고, 그속에서 대학 문화의 꽃은 더욱 활짝 피어날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용준 (사회대 정치외교학과) 조영현 (경상대 무역학과)

우리는 흔히 남의 학교와 우리 학교를 비교할 때 비난을 한다. 그러나 '비난'보다는 좀더 관심을 갖고 '비판'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의 반대 개념이 무관심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항상 그러한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개념을 무관심해왔다.

우리 주위의 작은 것에 대한 관심부터 동약에 대한 사랑의 첫걸음이 될것이고, 우리 안의 것을

명실상부한 대중조직으로 발전

진단과 모색

90년대 학생회

(3)

1. 대중노선으로의 모색

1987년을 맞는 동대학생운동 세력에게는 19대총학생회 선거 패배의 후유증과 신집중시위(86.11.3)와 관련된 많은 학우들이 구속, 수배되었다. 더욱이 새로운 정치사상(한국사회를 식민지반봉건사회로 규정하고 변혁의 성격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으로 바라는(보)이 들어오는 것과 맞물리면서 조직내의 혼란과 위기가 가중된다.

이 시기 학생운동세력의 파장은 사상적 통일이 보장된 새로운 질서를 갖는 조직의 건설과 학우들에게 버림받은 신뢰를 되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씨름운동의 한계인 각 family 간의 총과성과 민주집중이 구현되지 못함으로 인해 학생운동 지도부체들의 새로운 변화는 더욱 절박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정치노선정립에 있어 감정적 반목과 이론적 한계로 서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득시키지 못한 어느 family에서는 84학년, 85학원은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정치노선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86학원은 자신의 선배를 쫓아가는 옷치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움 끝에 동대학생운동세력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근거해 크게 NLPDR과 CA로 양분된다. 이 당시 CA론에 있어서 조직노선상의 문제는 "전술문제에 의해 혁명주의와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에 충실하면서도 상황타개에 관한 유일하고도 올바른 해답을 내리는 혁명조직의 건설과 그 결과로서 전국적 정치신분의 발전" 문제에 주목하면서 학생조직건설의 원칙으로서 "사상통일이 입각한 엄격한 자격요건, 지도의 집중과 책임의 분할, 조직내 민주주의와 철의 규율을 들 것"을 제시한다. 민권화현은 이러한 원칙 속에서 혁명조직의 학생 본질대로 조직적 지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생대중과 결합하는 구체적인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나 대중의 혁명적 후원을 대신해 대중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많은 학생대중이 모여 있으므로 활동하기 유리한 곳 정도의 인식 수준이었다. 또한 대중조직

2. 대중노선의 정착기

대중의 자발성에 근거하여 비민주적 총학생회를 탄핵한 동대학생운동세력은 87년 6월과 대동맹선거 투쟁을 통해 대중의 혁명성에 대한 신뢰와 대중적 진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도력의 부재를 절감한다. 이를 계기로 대중의 혁명성을 적극적으로 추종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관계로서의 조직노선의 문제가 제기된다. 운동의 주체는 대중이며, 운동의 발전이란 곧 대중의 의식적, 조직적 성장, 대중조직의 강화·발전이다. 대중조직이 각 성태가는 광범한 대중의 단결과 투쟁의 무기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중조직과 지도조직은 분리 구획되어야 한다. 대중조직과 전위조직은 자신의

◇글심는 차례

1. 문제는 다시 학생회로
2. 학생회 노선의 역사(84~86년 2학기)
3. 학생회 노선의 역사(87~90현재)
4. 회조직 공간체계 점검
5. 정치투쟁과 학자부의 문제 -계열체계 I-
6. 학회건설과 선전·문화계열 -계열체계 II-
7. 학생회 활동가의 품성과 자제
8. 총평 -정리

독자적인 조직원리에 입각해서 건설, 운영되어야 하며, 양자의 관계는 상급과 하급의 관계가 아닌, 전혀 서로 다른 질을 가지는 독자적 질서를 입각한 결합이어야 한다. 그리고 전위조직은 자신의 사상적, 전략적 실천을 과학적 대중노선을 매개로 대중조직에 관철시켜야 대중조직으로서의 조직화성에 의해 관철시켜서는 안된다. 대중조직은 대중의 자각과 단결에 기초해서 운동의 주체가 될 광범한 대중을 포괄해 내는 것이어야 한다. 전위

조직적 질서의 강화, 의식성과 투쟁성의 강화로 고찰될 수 있지만, 이는 총체적으로 그 시기 대중조직이 무감할 수 있는 정도 만큼의 당파성의 강화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조합적 한계로 인해 학생회의 조합적 강화를 우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다.

③민주주의 학생연맹

89년 2학기에 등장한 이 노선은 학생회가 진정한 대중투쟁조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현재의 학생회는 비기동적이고 또한 학우대중의 다양한 의식상태로 인해 선진적 사상의식과 현실적 투쟁을 결의한 선진대중(정치조직의 공개투쟁과 결합)이 시급한 선진적 정치투쟁을 수행할 상시적 투쟁체인 민권화현을 건설하여야 하고, 또한 학생회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학생운동의 조직적 파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생회가 지금 당장 대중적 정치투쟁을 벌여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학생회는 다른 선진대중들만의 독자적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것은 더 많은 학우대중의 의식화, 조직화를 통해 학생회의

성을 축적하기 위한 과단위 일상화(학회, 문화·선전조직)의 강화와 함께, 각 단위에서 투쟁과 일상활동을 통해 축적된 집단적 자부심을 모으기 위해 각급 단위의 운영위원회와 내실화와 형식적, 허구적이었던 총회를 학회, 부서, 학원별 토론을 거쳐 실제적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학우대중을 주제로 새우고 상급투쟁의 필요성을 따내야 한다고 제기한다. 자주적 대중조직으로서의 학생회를 인식하고 이를 강화하고자 노력한 이들의 공로는 크

간부들의 관료화 집중적으로 비판

정치조직-학생회 체계...민주제 강조

자주적 학생회론

민주적 학생회론

조직은 운동의 주체로서의 대중이 의식적, 조직적으로 가장 바르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내생적인 올바른과 중부합에 의해 대외적으로 지도하여야 하는 것이다. 87년의 대중투쟁의 경험은 88년에 들어서면서 학생회가 명실상부한 학생대중의 자주적 대중조직으로 발전하게 된다.

①자주적 학생회론 87년 6월을 계기로 운동의 주인, 주체는 학우대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N대에는 '사람 중심의 조직사상'을 전면에 내걸고 자주적 학생회로의 구현 과업을 지닌다. 그들은 89년에 대중운동이 지체된 근본원인을 자주적 학생회의 근본원리인 '사람중심'의 조직원리를 일관적으로 내세우면서 새로운 변신을 하게 된다. 정치조직-학생회인 이들의 조직노선은 학생회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활동부대로서 정치조직을 제기하면서 학생회에 대한 조직의 실현하는 인식은 학생회를 자기동력을 지니는 대중투쟁체로서의 강화에 한계로 작용한다. 대중조직의 강화가 대중조직내의 편협에서는 민주

단결과 투쟁력을 강화하는 꾸준한 노력을 방기하겠다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학생회사업에 있어서의 조립주의를 낳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대중조직을 통한 투쟁에 있어 진정한 대중의 힘에 기초하지 못하는 정치주의를 탄생시킬 뿐이다.

3. 맺음말

이상으로 80년대 동대학생회 정립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있다. 현시 학생회 강화는 다양 행식적 구조의 문제인 과중화시사, 전체학생대회 강화 등으로 바라볼 수 없으며 (이러한 구조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조직) 현시 학우대중의 자주적 대중조직이 요구하는 민주민주적 이념으로서의 투쟁, 이를 통한 대중투쟁의 조직화, 다양한 대중의 지향을 민주민주적 이념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중조직의 구축과 활동방식의 습득이라는 관점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김산 (본교교수)

독자투고

토지주택 문제의 전망과 대안(2)

1.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한계

1)택지소유상한제

절대 대지의 부족속에 전국민의 1.3%가 개인소유의 65.2% 대지의 60%를 차지하므로 대지면적은 더욱더 부족하게 된다. 이같은 세제강화를 통해 택지를 개인이 과대하게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 초과대지의 강제매각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투기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초과대지에 대한 세액의 정도, 그리고 택지와 대지에만 적용할 경우, 각종 혜택을 살펴볼 때 중산층의 부부적 분화와 더불어 세액부담을 임대료 및 택지가격에 반영시킴으로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귀결될 것이기 이것은 곧 불가와 적절할 수

무용 토지가 전국의 평균면적보다 특별히 많이 율랐을 경우 오른부분의 50%를 환수한다는 것이다. *과세표준=평균상승분-평균기상승분-개발비및저분지출액 *토지초과이익세=과세표준×0.5 이와같이 세액을 자체히 살펴보면 평균상승분이 큰경우에도 세금은 극히 미비하며 현실법상 비업무용 위장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으며 대상토지에 실제 투기 대상이 되는 목장, 임야, 골프장이 제외되었음에도 또한 평균상승율이 평균상승률의 1.5배가 넘는 토지의 판정도 정부(국세청장)가 정하는 것으로 한정시킴으로 고급판토들의 부정매매의 길을 그대로 열어놓고 있다.

시키고 이어 독점개발은 부동산의 대량구입과 독점을 기초로 투기를 부추김으로써 실질적으로 민중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본축적 위기를 타개하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정권도 토지문제는 자본의 원활한 성장과정에 상반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생활을 위협하고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켜 체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등장하자 정권의 사상이 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비업무용 개발부동산 매각조치등 각종 지지책정을 펴고 있으나 실질적인 해소책 제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덧붙여 중합 토지제, 금융실명제의 경우도 입법과정에서 대폭 수정되거나 전면무효됨으로 정권의 계급성과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듯이

토지구유화 확대돼야

토지정책...독점자본축적 합법화과정 국민90% 운동의 구심형성 요구

바에 없는 것으로 토지는 일부 독점자본의 손으로 들어갈 것이다.

2)개발이익 환수제

개발이익이란 땅의 용도를 바꾸어 얻어지는 불로소득인데 그간 이러한 이익은 모두 개발업자가 차지했다 용도변경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눈발이 떨어지듯 바뀐 8-9배 상임용지로 바뀌면 11~13배 공임용지로 바뀌면 6~7배정도 땅값이 상승한다. 결국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은 이를 예상한 투기가 성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같은 국가정책들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이해와 맞물리는가를 살펴볼 때 독점자본과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자본축적을 합법화 시켜주는 과정에 불과하다. 즉 부분적으로만 민중들의 경제적 욕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모르지만 결국 총자본의 이해에 반영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상반가중 부동산투기와 주택가격상승으로 민중의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도에 직면하여 논의되었던 토지구유화, 토지공개념의 경우 국가가 토지시장의 개입으로 토지의 효율성증대와 투기거래제한을 목표로 현재의 생산성위주의 정책에서 본래의 토지의 국유화 확대, 토지소유제한 및 투기토지 환수, 공공임대 주택의 대규모 건설과 대중의 실업률, 전·월세임주자 권이보장 강제철거 즉각화, 부동산 투기 및 독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등을 주요골자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성과 같이 독점자본의 수탈방식이 임권뿐만 아니라 투기주택부문에까지 확대되고 권력의 방조된 조장으로 더욱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 즉, 토지구유화 문제가 일시적 부분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적 구조적 모순을 가장 절명하게 표현하는 기본문제라 제기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므로 이는 토지구유화 비록 후구적이지만 극히 미약한 내용임에도 국민의 지지도 90%에 육박했다 는 것에서도 입증된다. 이것은 또한 토지구유화 문제를 대중적 역량으로 해결하기 위한 운동의 구심형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관련 운동의 주체로 가장 강력한 주구교동의 당사자인 노동자이며 또한 도시빈민들로 운동의 중심적 지대로의 발전은 축적위기가 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현실화되자 3당연합의 명분과 정치적 분기적 조성과 필요성과 함께 자본과 권력을 인플레이션에 의한 부의 강제이전을 통해 자본의 축적위기를 타개코자 한다. 이것이 현실화될 것이 있다면 중시 및 경기부양책 등으로 9-10조원의 자금을 방출하므로 서서히 재원되어온 인플레이션을 결정적으로 격하

총장후보 선출에 대한 공동 성명서

동국인들의 대표기구인 교수회와 노동조합, 그리고 총학생회의 대표들은 한 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발전의 전망과 침체의 우려를 교차하면서 동국의 현안을 논의하였다. 3차에 걸친 대표자 간담회와 실무 접촉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교수, 직원, 학생 모두 동국의 발전을 위한 의지를 모아야 한다는 것과 정통성 있는 지도 중심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였다. 따라서 3자는 차기 총장후보 선출을 조기에 실현하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3자 연석회의를 통해 결집된 전통국인의 합의와 총의에 따라 민주적 총장후보가 선출되도록 공동노력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우리는 이번 총장후보 선출의 과정과 결과가 동국발전의 시금석이 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따라서 학내외의 어떠한 난관과 방해에 부딪히더라도 교수, 직원, 학생 모두의 공동 노력으로 극복할 것이며, 모든 동국인들이 진심으로 성원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이번 총장후보 선출이 원만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과 학교당국이 동국발전의 대의 속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는 총장 선출에 대한 법인 이사회의 법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존중하지만 그 권리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이 회피되거나 왜곡되어서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동국인의 총의를 수렴하는 재단 이사회의 지혜는 동국 발전의 원력이다. 또한 학교당국은 대학의 자주성이란 대원칙에 입각하여 이번 총장후보 선출이 학내 주체들의 자주적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교수, 직원, 학생 모두는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어떠한 난관과 방해도 단호히 공동대처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1990. 9. 18

동국대학교
교수회·노동조합·총학생회

정치현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등 비정치적 환경 변수들까지를 망라한 제3세계 연구서!

第三世界論

關丙天 (정치의교과와 교수) 共著
李愚員 (원광대 교수)

제3세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탄생한 많은 신흥국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당사국이라는 시각에서 다른 신흥국들과의 비교를 위해, 그리고 고도성장에 따른 세계각진출의 현지연구로서 제3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288쪽 5천원)

도서출판 大旺社刊

중주환 著 (농업경제학과 교수)

한국 資本主義 史論

중주환 지음
저자나름으로의 자본주의 인식에 이은 한국자본주의는 저구자본주의와의 비교분석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이 책은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우리의 보다 정확한 인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394쪽 7천원)

근대 경제학의 재검토

宇澤弘文 지음
주 중 환 편역
이 책은 학문적인 엄격보다 저자 자신이 신고전학파경제학에 대한 자기비판을 통해 일본 경제학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려고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미국경제학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있는 우리경제학계와 그 정책수단을 맹신해온 관련 경제학에 자신의 계기를 출수있는 책이기도하다. (234쪽 3천8백원)

한울 아카데미

독자부고 남·북고위급 회담과 민족적 통일운동 민주변혁 전제로 통일운동 벌여야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많은 관심속에 막을 내리고 이어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이 16일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
이번같은 기존 범민족대회추진본부와는 다른 통일운동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투고된 글이며 이후 열릴 제2차회담을 바라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원필자)

I. 남북고위급회담과 남한민중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은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긴장완화, 평화공존 그리고 남한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분단의 법적·제도적 장치의 철폐를 위한 진전된 태도와 민족의 통일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긴장완화와 평화공존, 남북한 자유왕래와 전면교류, 분단의 법적·제도적 장치의 완전한 철폐는 당국자간 대화와 협상의 산물이나 노동자계급과 근로민중의 통일운동에 의해 쟁취되어야 할 투쟁의 산물이며 민족적 통일투쟁에 의해서만 그것의 완전하고도 전면적인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와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원하는 통일방안을 밝혀보고자 한다.

대통령원칙에서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의 형태로서 총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 체제의 단일국가를, 통일의 원칙에 있어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자유민



△범민족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통일선봉대

II. 남한정부의 통일정책과 최근의 대북한제외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남한정권의 통일정책과 최근의 대북제외는 분단구조를 현상적으로 유지한 채 자본주의적 흡수통합통일을 노리고 있다. 그러한 기본적인 구도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교차승인에 대한 남한정부의 대응과 같은 입장과 태도를 볼때 매우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은 "독일과 예처럼 분단국의 유엔 동시가입이 전혀 통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로 "통일 전까지 공동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 남한은 "고위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하는 것보다 북한이 끝내 우리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독립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 단독가입도 불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이번(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계선 기자 1990.9.2일자 참조)

간단히 말하자면 분단구조를 유지하는 것-독립된 두 개의 국가, 양 체제의 공존인정-이 남한정권에 자본주의적 흡수통합통일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남북한 양 체제의 인정뒤에 단계적으로 자본주의적 통일을 이루겠다는 기본구도는 노태우대통령이 1989년9월11일 국회에서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자주·평화·민중대선이라는 3

대한 남북한의 모든 문제를 당국자간의 협의·협상으로 해결한다는 남한정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즉 민족적 통일운동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판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의 대북제외에서도 남한의 통일정책의 기본적인 구도를 우리는 엿볼 수 있다. 남한정권이 최근 내놓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해서 북한은 대외적으로 '남한정권이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근본적으로 구제적, 실질적인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III. 현단계 통일운동의 성격과 민족적 통일방안

분단은 1945년 이후 1950~

53년의 한국전쟁을 거쳐 남한사회내부에 구조적으로 내재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다시말해 분단은 체제-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모순과 남한사회내부의 계급투쟁을 매개로 관철되어 노동자계급과 근로민중에게 대한 착취와 억압의 지배체제로 내재화되고, 분단 그 자체와 분단의 지배구조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남한사회내부에 분단이 유입되는 지배구조와 그것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는 분단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단이 구조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다는 구조적 표현은 우리가 자주 거론하는 소위 '분단 이데올로기'이며 법적·제도적·이데올로기적 체제로서의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민중통제를 위한 폭압적인 공안통치체제와 기(안기부·보안사·치본으로 대표되는),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분단이 구조적으로 내재화되는 과정은 예속적·독점자본의 노동계급과 근로민중에게 대한 착취와 억압 메커니즘의 성립, 자본주의적 착취체제의 형성과 발전과정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분단은 남한사회내부에 자본주의적 발전경향을 가속화시키고 군사파시즘의 폭압적 통치체제를 강화시켜왔다. 현재에 있어 분단구조를 확대재생산하는 본질적 원인이 예측적 독점자본의 자본주의적 착취체제인 군사파시즘체제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며, 따라서 민족적 통일방안은 종속적 독점자본의 자본주의적 착취체제인 군사파시즘체제를 철폐하는 당면 민주변혁을 전제로 한 통일을 당면하게 요구한다.

다른 한편으로 통일은 남북간 평화적·자주적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분단은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립상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냉전체제를 유지시켜왔다. 최근의 국제정세의 변화는 분단이후 정면한 정치군사적 대립상태를 유지해 온 한반도에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주고 있다. 남북한 정치군사적 대립상태가 분단구조를 유지하고 확대재생산하는 원인의 하나라는 사실은 매우 분명하다. 그러므로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이 실현되어야 한다.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가 급선무 분단구조 철폐위한 통일운동 돼야

우주의제적 유지 △자유경제체제 유지라는 '민주적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통일의 과도적 중간단계는 '모든 남북 문제의 당국자간 상호 상주대표부의 설치 등 모든 문제에 관한 남북의 협의'라는 당국자간 협의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통일의 과도적 중간단계는 '모든 남북 문제의 당국자간 상호 상주대표부의 설치 등 모든 문제에 관한 남북의 협의'라는 당국자간 협의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통일의 과도적 중간단계는 '모든 남북 문제의 당국자간 상호 상주대표부의 설치 등 모든 문제에 관한 남북의 협의'라는 당국자간 협의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53년의 한국전쟁을 거쳐 남한사회내부에 구조적으로 내재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다시말해 분단은 체제-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모순과 남한사회내부의 계급투쟁을 매개로 관철되어 노동자계급과 근로민중에게 대한 착취와 억압의 지배체제로 내재화되고, 분단 그 자체와 분단의 지배구조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남한사회내부에 분단이 유입되는 지배구조와 그것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는 분단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단이 구조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다는 구조적 표현은 우리가 자주 거론하는 소위 '분단 이데올로기'이며 법적·제도적·이데올로기적 체제로서의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민중통제를 위한 폭압적인 공안통치체제와 기(안기부·보안사·치본으로 대표되는),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분단이 구조적으로 내재화되는 과정은 예속적·독점자본의 노동계급과 근로민중에게 대한 착취와 억압 메커니즘의 성립, 자본주의적 착취체제의 형성과 발전과정

한정주 (보급동문)



종단·재야 망라한 추진기구 요구돼 불교6개단체 방북승인 얻어 주목

범민족대회개최, 남북고위급회담 통일에 대한 논의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는 민주당측의 확고한 통일 의지보다 88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민주세력의 자주적 교류투쟁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자주적 민간교류의 일환으로 '통일열린 한가위 북한불교승려단 추진위원회'를 결성, 방북신청에 이어 국토통일위원의 승인을 얻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의교수장자, 대한불교정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6개의 불교단체들이 결성한 이번 승려단은 오는 10월1일부터 7일간 표방산 보현사, 금강산 유점사 등 북한의 불적순례와 함께 불교문화제 개최, 조선불교도연맹과의 교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전 종단협동 승가단체에서 총무원장을 비롯 몇몇 지도급 인사들이 선연·전시적차원의 교류의의를 해왔던 것에 비해 이번 승려단은 승가단체가 아닌 불교단체에서 추진한다는 점에서 자주적 민간교류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불교계의 통일운동은 다른 부분의 통일운동과는 달리 중

교를 매개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색입니다. 자주·평화·민중대 단결의 3대원칙은 불교사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오랜 세월동안 불교가 우리의 민족종교로 뿌리를 내린 것은 다른 종교보다 불교가 보다 쉽게 민간교류의 물꼬를 틀수있다고 봅니다."라며 대불련 서울지회장 김남수군은 불교계 통일운동의 특성을 말한다.
불교계 통일운동은 조국통일의 열기가 높아지던 지난 88년부터 '공동체발원회를 위한 기원법회' 89년 '통일기원도보대행진' 90년 '8·15기념불교문화공연' 등 해마다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남한내의 불교교류추진단체가 남북불교승려단협의회, 남북불교도 교류추진위,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 협의회 등 5개나 돼 불교교류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선연적 계기가 남발함으로써 승가계를 망라한 범불교도추진기구의 결성이 요구된다.
또한 교류의 내용에 있어서도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이 "남북불교교류와 통일에 관계된 제반 사항을 논의하자"고 밝힌것과는 달리 종단협동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인 성격은 띠기 때문에 불교교류

와 대화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것은 불교계통일운동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본교 불교대에서도 지난 3월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북한불적순례를 위한 방북투쟁을 추진기로 했으나 2학기 불교대교수체용으로 인한 장기휴강 등으로 그 준비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불교계 통일운동,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민중이 정서적으로 불교에 배어있다는 점에서 민족통일운동을 확실히 할수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불교계통일운동은 자주적 민간교류의 일환으로써 단지 북한을 방문하는나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교류추진과정속에서 수많은 불자들을 의식화시키고, 정부의 반통일성을 폭로해내는 것이 앞서 수 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화와 통일에대한 논의없는 민간교류는 무의미하므로 불교교류또한 단순한 교류차원을 넘어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인연해방의 불교는 민족의 평화·통일로써 완성되기 때문이다. (유기용 기자)

동막로

지난 18일 오후 2시 동국관 앞.
"야 야 야. 그것도 제대로 못넘기나" 조금전 햇빛살이 따가운 흥겨운 상가된 얼굴들.
같은날 같은때 도서관내 열람실.
한자라도 훑쳐볼까 학문에 열중인 평소보다 오히려 많은 진지한 얼굴들.
그리고 불상우의 잔디밭.
인생문제를 생각하며 사뭇 심각한 토론과 웃음을 즐기는 여유있는 얼굴들.
평소와 다름없는 그야말로 대학의 다양성이 구현된 평온한 캠퍼스였다.
그러나 같은때 도서관 앞 "정기학생총회는 여러분 대중적인 참여 속에서만

무관심

올바로 개척될 수 있습니다..."
제2학기 정기학생총회가 열렸다. 2학기 학생회 사업을 보고하고 학우들의 의사결정을 총회속에서 이끌어내기위해 정족수를 채우려는 학생회 간부의 호소는 성성중은 스피커를 타고 교

부터 이런 꾸증을 많이 들었다. "공부는 인하고 파자만 달린다"고.
그때의 모습과 지금 이러한 동양의 학우모습에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양성이 대학의 특성이려면 그에 따라다니는 '의무'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권리에 편승한 나머지 의무는 소홀히했던 어릴때의 모습, 바로 우리들 현재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학우가 우리들중 극히 일부만 있었다는 현실이 더욱 우리를 가슴아리게 하고 있었다.
슬픔을 느끼던 시간도 잠시, 그토록 열성적으로도 해내던 스피커의 호소도 잠잠했다.
그렇게 정기학생총회는 무산되어 버렸다. "정족수 미달"로. (남국 은근)

사람을 소중히 꿈을 소중히

잃어버린 꿈의 반쪽을 보고 왔어요.

젊은이는 조국을 찾아갔다고 했다가. 이념은 가치관을 만들어 주고 자연은 아름다움의 기준을 심어준다고 말이다.

"내 조국은 관문에서 한라산까지 전부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도 모르는 나, 나는 과연 누구일까. 매일 아침 똑같이 일어나서 학교 가고 친구 만나고, 눈 앞의 작은 이익에 울고 웃고 현명한 판단인 것이라곤 계산하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나의 모습에 조금은 불안이 있었어요. 서강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백두산 등정팀의 일원으로 백두산을 다녀온 김정해(22)씨 역시 뜨겁지만 한 가슴에 비해 쉬이 결론은 나지 않는 물음을 가졌었다.

"백두산에 오르면서 시야가 점점 넓어질수록 눈 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잠입한 산하를 가진 조국의 한 부분인줄은 정말 몰랐던거죠. 자기가 오리만큼만 알고 있던 백두, 꼭 그런 기본이었어요. 내 잃어버린 반쪽을 찾았다고나 할까요."

사사로운 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기쁨에도 슬픔에도 항상 초연했던 조국, 그 길은 산하에서는 항상 의연함이 강같이 흐르는 조국을 본 것이다.

"앞으로 고만에 서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희는 백두산의 그 슬기로운 정기로 태어난 아이들이야. 그 산만큼 깊고 큰 꿈을 가져와라 라고 말해요."

꿈을 향해 의지를 불태우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읽어 보내주시고, 채택된 이야기는 대학신문에 소개하고 소정의 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 서울 종로구 평동 108-2제일기획 제작12국 대학신문고임 김 준영, 김 영일 / TEL 724-0553

현장취재 우루과이 열풍에 몰살 않는 제원·제천을 찾아

위기감과 저항의식 갈수록 고조

자본주의권의 교역질서를 세우고 자유무역주의를 확립한다는 허울 아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하-U·R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86년 9월 판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회원국들이 우루과이 콘타펠에 모여 여덟번째 다자간협상을 열면서 U·R 협상은 시작된다. U·R 협상은 상품과 서비스 협상으로 나뉘어 농산물, 금융, 건설, 통신 등 16개 분야에 걸쳐 오는 90년 말을 최종 협상기한으로 잡고 있다. 특히 16개 분야 중 농산물 협상 그룹은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데 농산물협상 그룹도 200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스미미 자유화된 농산물협상의 현행 수준 동결 △남이 있는 전품목의 자유화를 주장하며 국내 농업보조정책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급속한 감축과 농업개발은 허용하되 국제무역에 영향을 없애고 개도국도 수입 제한품목은 모두 자유화되도록 유예기간과 이행에는 선축성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이 U·R 협상의 한국산품이 압박을 받으면서 전국의 7백만 농민들을 생존위협속에서 9·7 농민대회 등 조직적 대응을 전개했다. 보고 농활지역인 제원·제천 지역을 둘러싸고 농민들의 U·R에 대한 반성과 농민회화동을 살펴 보았다. (원정지)

있으면 나가요. 지난번엔 데모에 농가부채이자도 내던걸유"라며 수입관세와 관련, 농협과 싸우는데도 들러줬다. 그 내용인즉 급성면 농협에서 수입업자가 산 수입관세 65분을 보편하는 것을 발견한 농민들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 수입관세를 들여와 놓는 것에 격분, 농협에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을 요구, 결국 책임자가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급성면 농민들의 감정은 가라앉기는 커녕 농협에 대한 불신만을 갖게됐다고 한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이용각씨는 대담했다. 농산물협상 그룹도 200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스미미 자유화된 농산물협상의 현행 수준 동결 △남이 있는 전품목의 자유화를 주장하며 국내 농업보조정책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급속한 감축과 농업개발은 허용하되 국제무역에 영향을 없애고 개도국도 수입 제한품목은 모두 자유화되도록 유예기간과 이행에는 선축성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이 U·R 협상의 한국산품이 압박을 받으면서 전국의 7백만 농민들을 생존위협속에서 9·7 농민대회 등 조직적 대응을 전개했다. 보고 농활지역인 제원·제천 지역을 둘러싸고 농민들의 U·R에 대한 반성과 농민회화동을 살펴 보았다. (원정지)

이런 국제정치는 중립국세력, 비동맹세력이 제3세계세력으로 확대되고 발전되어 국제정세의 한축으로, 중심세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 초엽부터 정부의 대중립국교와 외교의 다변화노력에서 핵심대상국으로 등장한 아랍세계는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타어느 지역보다도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석유의 대부분은 아랍산유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까지 우리의 해외건설수출의 대부분이 아랍세계이며 전체수출 수출의 15%가 아랍권지역이라는 사실을 보면 이 지역이 지닌 가치는 우리에게 있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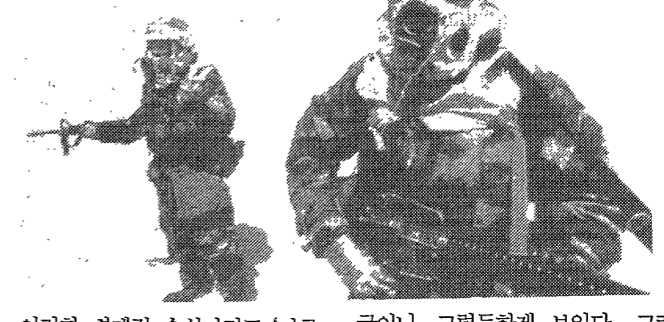
이들 아랍국가를 중 특히 이라크

협상은 농민발상정책임을 잘 알고 있었다.

지난 4월 U·R 협상이 마바지에 접어들어 90년도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정부가 내놓은 농어촌 발전종합대책안을 보더라도 정부의 의도를 의심케한다. 농촌의 산업구조를 점차 농업에서 다른 부문으로 이동시키려는 전업화와 전문적인 기업농업의 내용으로 U·R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농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뜻이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제원군에는 강서, 금성, 송학동지에 농공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단지내 입주업체가 영세하고 부녀자등

마워 주변비 역외 정부의 수락



이러한 경제적 손실마저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느껴지는 우리에겐 미국은 미군의 페르시아만 주둔병력유지에 소유되는 경비를 우리에게 분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정부에 1억달러 이상을 분담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듯해 보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중립국으로 하도록 저축한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석유소비국가의 하나로써 우리의 이익을 위한 미국의 배려에서 나온 군사행동이 있다면 그 배려쯤은 무시해도 좋을

것 같다. 우리는 미군의 페르시아만 주둔에 대해 의논한 바도 없으며 외교적으로 민간한 지역인 아랍 국가들의 분쟁에 개입할 원치 않는다.

정부는 이처럼 국가적 이익은 커녕 손실을 자초할 것이 뻔한 사건에 굳이 끼여들려 하고 있다. 더욱이 이란-이라크 전쟁이후 이라크와의 관계가 호전되어 가고있던 상황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경제봉쇄조치에 참여하는 것만도 한심한 지경인데, 무역적자가 연속되고 수혜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가 일어난 국내상황을 무시하고 미군의 군사주둔경비를 분담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페르시아만 사태에 있어서 우리의 국가적 이익에 대한 응징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외교정책 또한 지주적이라는 하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통과를 오히려 미국의 입장과 상반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여 아랍지역의 문제가 아랍국들과 지역분쟁해결기구, UN에 맡겨두어야 한다.

중속외교 탈피한 자주적 외교질서 "자기나라 싸움 우리보고 돈내라니" 대 이라크 외교는 미국과 반대돼야

와 우리의 관계는 한국이 1963년 이라크의 친북한 외교노선때문에 별 다른 진전을 보지 않았었다. 이후 1980년 이란-이라크전쟁에서 북한이 이란의 이슬람혁명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이라크와 북한간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라크와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이때에도 우리기업체와 교민들이 팔레티 왕정하의 이란에 막대한 경제적 진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주를 받던 팔레티 정권이 붕괴되고 반기미치클라 높은 이슬람 혁명세력이 등장하자,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정부는 자국의 실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 호책도 없이 이란의 이슬람혁명군을 무조건적으로 비인격적 이라크로부터 전면적인 철수를 단행하였다. 이처럼 이란-이라크전쟁에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겪으면서 파킨, 가가와인 이라크에 대해, 이제 또 다시 아랍지역을 자신의 주도권하에 두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데올로기에 우리 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5천만달러에서 1억달러(350억 원~700억 원)를 추정예산으로 계산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이란 페르시아만 사태에 있어서 미국은 발생24시간도 되지 않아 경제봉쇄조치를 펴고 군대를 신속히 배치하는등 기다렸다는듯이 칼을 뽑아놓고 설쳐대고 있다. 미국이 이와같은 행동을 취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두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아랍민중주의라는 강력한 벽이 부딪쳐 중동지역에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데 빈번히 실패하였던 미국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이 지역에서의 해군모니를 정당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전략적 지대'에 대한 응징으로서의 역할이 미국만이 할수 있다는 구실을 내세워 사우디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사우디에 즉각대규모 군대를 파견, 페르시아만에서 무력시위에 들어간 것일 것이다. 또한 사우디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등 중동지역에 대한 그들의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로 미국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여러국가들을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어 석유공급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80년대 이후 칠레의 높은 산으로 빠져들고 있는 금수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무기판매에 박차를 가하여 쿠웨이트와 같은 처지가 될것을 두려워하는 아랍에미리트와 오만등에 F-15전투기등 대량의 미국무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에는 F-15전투기, 탱크, 스타터미사일등 25억달러어치는 이미 판매하였고 앞으로 1년동안 180억 달러어치의 무기판매가 거의 결정되면서, 그야말로 무기장사로 독특한 재미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외교정책의 한계는 눈앞에 보인다. 60년대 아랍 세계에 아랍사회주의를 제대로 세우고자 했던 미국은 미국의 시작과 같은 견해로 이끌려 미국의 외교노선을 그대로 추구하였다.

그렇고, 우리의 제3세계 외교는 실례로 끝났으며 우리의 국익에 커다란 손실을 입었음은 물론이다.

이런 외교노선에 있어서 정부의 자주적 영향부족과, 사태를 보는 관점의 미숙, 미국의 압력에 반자주적인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 이익이 관철되는 외교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들 처다란 어려움속에서 밀어붙였어야 한다.

김현정
(외대대학원 중동학과 석사과정)

U·R협상 저지 대책 본부 건설 시급 "우리보고 미국머슴살이 하라는 거유"



단순 노동을 필요로 해 월2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다.

또 일부업체는 부동산투자를 목적으로 값싼 땅값과 세제혜택을 노리고 농공단지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U·R협상이 시작되면 4년이 됐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거나 관심을 일으키지 못한채 '어쩔수 없이 양양'식의 정부태도에 개도국에서 얻어낼수 있는 유예기간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보고 농과대에서는 제원·제천의 상인들은 U·R협상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나 대저방안에는 막막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전국농민회 총연맹 주최로 "U·R협상반대! 쌀값쟁취 농민대회"가 평주, 전주, 청주 등 전국 8개지역에서 1만8천여명의 농민·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전국각지에서 농민들의 U·R저지에 대한 열기는 대단했다.

제원·제천농민회도 대회당일 제원·제천의 1백여개 마을에서 1백여명씩의 집회에서 기치를 세우고 담수, 기타 장문을 깨고 전차봉을 휘두르는 경찰에 의해 모두 연행됐다 풀려나기도 했다.

이처럼 U·R협상에 대한 농민들의 위기감과 그에 따른 불신감 대항하는 날로 격해지고 있다.

U·R협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농민들이 질문지라도 생활속에서 농민들이 느끼는 U·R

수입등에 대해 "어기 47개 상위 의 상인들은 U·R협상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나 대저방안에는 막막하다"고 밝혔다.

제원·제천농민회도 대회당일 제원·제천의 1백여개 마을에서 1백여명씩의 집회에서 기치를 세우고 담수, 기타 장문을 깨고 전차봉을 휘두르는 경찰에 의해 모두 연행됐다 풀려나기도 했다.

이처럼 U·R협상에 대한 농민들의 위기감과 그에 따른 불신감 대항하는 날로 격해지고 있다.

U·R협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농민들이 질문지라도 생활속에서 농민들이 느끼는 U·R

충청북도 제원군은 8개면에 4만2천여명이, 제천시에는 13개동 10만여명이 고추, 담배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산간농업지역이다. 이 지역의 제원·제천농민회는 3백50명의 회원들을 갖고 농가부채탕감, 고추담배농사 등을 이끌어 왔다. 또 특별 농민회지부가 봉양관을 비롯, 5개면에 설치돼 있고 마을에 농민회 지회도 결성된 곳도 있다. 제원지역도 고추과 담배농사수익자회와 조직되어 농민들이 급격히, 대부분이 울산농지터 떠나고 있으며 농민회 중공자자료를 의하면 전체농민중 60%가 이농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호랑 농협수익이 6백500만원인데 비해 농가부채가 4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한국 농업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제원지역 농민들에게서 U·R협상에 대해 "U·R협상이 통과되면 농촌은 불장 다다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다. 제원군 금성면 월림1리 라는 마을을 찾아 보았다. 월림저수지를 끼고 53가구 3백여주민이 고추, 참깨, 채소를 주로하는 마을인데 농민회 월림분회가 결성돼 농가지체 공동구입, 작목반운영, 농산물직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동네에 들어서면 처음 마주친 아주머니는 U·R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U·R협상인지 되면 농촌이 몰살고 파헤쳐지고 하대유. 우리동네는 농민회원이 21명이나 돼 데모만

9월 신학기!

(주)시사영어사가 만든 우수한 교재들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전국서점에서 판매중!

(주)시사영어사
문의 (대표) 534-6767, 274-0509 (인무동) 275-5258

영인신문잡지를 재미있게 읽는 법
비즈니스 영어는 이렇게 하라!
교실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영어
미국 영어를 이래서 재미있다
You Know What? (What's Your English?)
일본어 Q & A
알기 쉬운 일본어 관용구
시사 일본어 교재 (상, 하)
기초 일본어 학습사전

영인신문잡지를 재미있게 읽는 법
비즈니스 영어는 이렇게 하라!
교실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영어
미국 영어를 이래서 재미있다
You Know What? (What's Your English?)
일본어 Q & A
알기 쉬운 일본어 관용구
시사 일본어 교재 (상, 하)
기초 일본어 학습사전

시사 엘리트 英韓사전
4,600원

시사 콘자이스 英韓사전
4,600원

시사 크라운 英韓사전
4,600원

英韓대역문고 (전 100권)
1,000원

英作文全集 (전 9권)
1,000원

영작문연구
1,000원

시사 무역영어사전
1,000원

TOEIC 800 대학시리즈
전 6권
1권 경향과 공략법
2권 LISTENING 대책
3권 문법/STRUCTURE 대책
4권 WORD POWER 대책
5권 READING 대책
6권 IDIOM 대책

TOEFL 600 전략시리즈
전 6권
1권 경향과 공략법
2권 LISTENING 전략
3권 문법/STRUCTURE 전략
4권 WORD POWER 전략
5권 READING 전략
6권 IDIOM 전략



람보에게 침탈당한 '아리랑'을 되찾자

'올바른 대학문화'를 찾아서

헤원은 오늘도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왔다. 특별하게 이루어 놓은 일도 없이 그저 친구들과 어울리는 행동이 이제는 조금씩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다부진 생각을 하며 학교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떨어지는 빗줄기는 다소 추운 듯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지금까지의 무기력의 찌꺼기를 쓸어내리는 빗자루와 같다고 생각하니 웬지 기분이 좋았다.

교문을 들어서 올라오는 길 옆의 건물들은 숲속의 별장이었다. 그때 헤원의 눈길은 막 뛰어들려는 개구리 같은 모습에 눈길이 떨어졌다. 동유럽 양에 빼빼로 우산을 받친 모습의 누군가가 있었다. 민준이었다. 다가가 이야기 해보려다가 그냥 멈추어 섰다. 혼자서 쭈그리고 앉았다가 서서 말을 유심히 바라보는 모습이 어쩐지 창상 같아 보였다. 멋있다고 느껴졌다. 다가가면 놀란 개구리처럼 도망갈 것 같았다. 그냥 학생회실을 향해 걸어가자.

길게 늘인 머리에 초롱한 눈빛의 헤원은 언제부터인가 항상 똑같은 단발에 어딘지 모르게 시인같은 고독한 모습의 민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헤원은 걸어가면서 문득 며칠전 민준이 만났던 일을 떠올렸다.

"민준이 뭐하니?"

따뜻한 햇빛이 침범할 수 없는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는 민준에게 헤원은 다가갔다.

"민준이 아니라 민준이야. 발음을 확실히 해"

무표정한 얼굴로 민준은 무뎠답게 대답했다.

"너 이름은 김민준보다는 김민준이 훨씬 어울릴 것 같아. 아! 백년도 못 살면서 친년 근심을 품고 있는 인간이야. 하하하"

"나 학교 그만 들어가?"

"또 시작이군. 이제 죽어버린다는 말까지 나오겠네?"

헤원의 농담이 짜증스러우니 민준은 눈살을 찌푸린다.

"자꾸 말장난 하지마. 학교 다니면서 듣는 것은 학교생활이라는 말이야. 알바전 동생이 나한테 그러더라. 수업도 제대로 안들어 가고, 술먹고 미팅이나 여자애기만 한다고 정말 난 학생이라는 좋은 반말로 그리고 단합이라는 좋은 명분으로 길바닥에 엎어지고 고성발가하는 것을 합리화시켰는 것이 뭐지? 혼혈을 읊비로 대학 문화를 찾고 배우고 이야기 하지만 정말 대학문화가 있는 걸까? 왜 술먹고 당구치고 재미삼아 돈내기 파파 지고, 집회하는 것은 싸움하러 모이는 것 같이 과격하게 보이고"

"바보야 너 생각이 깊은 줄 알았더니 겨우 그런 걸 가지고 죽을 상을 하고 다녔어? 그건..."

민준의 속 좁은 말에 헤원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 벌떡 일어났다.

그리 어렵지 않게 살면서 학교에 들어오고 그냥 생활하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 온 헤원에게는 모든 게 그저 그러려니하고 넘겨 왔었다. 반면 민준은 무척 자유롭고 싶어 하는 친구였다고 헤원은 생각했다. 딱혀있는 공간을 벗어나고 대학의 자유를 느껴보자는. 하지는 것. 바로 그 현실이 있었지만 아무런 낭만이었다는 것

에 선택된 난 이런 모습이지?"

민준의 말에 헤원은 그냥 피식 웃어 버렸다.

민준은 지금 커다란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소한 것, 조그만 것부터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것일 것이다. 대학문화가 멋진 공간에서 연극을 감상하고 화실에서 피카소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민준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학생회 친구들과 생활과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동아리에서 하곤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바로 그 현실이 있었지만 아무런 낭만이었다는 것

에 선택된 난 이런 모습이지?"

민준의 말에 헤원은 그냥 피식 웃어 버렸다.

민준은 지금 커다란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소한 것, 조그만 것부터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것일 것이다. 대학문화가 멋진 공간에서 연극을 감상하고 화실에서 피카소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민준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학생회 친구들과 생활과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동아리에서 하곤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바로 그 현실이 있었지만 아무런 낭만이었다는 것

에 선택된 난 이런 모습이지?"

민준의 말에 헤원은 그냥 피식 웃어 버렸다.

민준은 지금 커다란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소한 것, 조그만 것부터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것일 것이다. 대학문화가 멋진 공간에서 연극을 감상하고 화실에서 피카소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민준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학생회 친구들과 생활과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동아리에서 하곤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바로 그 현실이 있었지만 아무런 낭만이었다는 것

에 선택된 난 이런 모습이지?"

민준의 말에 헤원은 그냥 피식 웃어 버렸다.

민준은 지금 커다란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소한 것, 조그만 것부터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것일 것이다. 대학문화가 멋진 공간에서 연극을 감상하고 화실에서 피카소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민준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학생회 친구들과 생활과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동아리에서 하곤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바로 그 현실이 있었지만 아무런 낭만이었다는 것

에 선택된 난 이런 모습이지?"

민준의 말에 헤원은 그냥 피식 웃어 버렸다.

민준은 지금 커다란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소한 것, 조그만 것부터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것일 것이다. 대학문화가 멋진 공간에서 연극을 감상하고 화실에서 피카소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민준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학생회 친구들과 생활과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동아리에서 하곤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바로 그 현실이 있었지만 아무런 낭만이었다는 것

에 선택된 난 이런 모습이지?"

민준의 말에 헤원은 그냥 피식 웃어 버렸다.

민준은 지금 커다란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소한 것, 조그만 것부터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것일 것이다. 대학문화가 멋진 공간에서 연극을 감상하고 화실에서 피카소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민준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학생회 친구들과 생활과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동아리에서 하곤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바로 그 현실이 있었지만 아무런 낭만이었다는 것

에 선택된 난 이런 모습이지?"

민준의 말에 헤원은 그냥 피식 웃어 버렸다.

민준은 지금 커다란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소한 것, 조그만 것부터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것일 것이다. 대학문화가 멋진 공간에서 연극을 감상하고 화실에서 피카소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민준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학생회 친구들과 생활과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동아리에서 하곤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바로 그 현실이 있었지만 아무런 낭만이었다는 것

에 선택된 난 이런 모습이지?"

민준의 말에 헤원은 그냥 피식 웃어 버렸다.

민준은 지금 커다란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소한 것, 조그만 것부터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것일 것이다. 대학문화가 멋진 공간에서 연극을 감상하고 화실에서 피카소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민준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학생회 친구들과 생활과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동아리에서 하곤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바로 그 현실이 있었지만 아무런 낭만이었다는 것

에 선택된 난 이런 모습이지?"

민준의 말에 헤원은 그냥 피식 웃어 버렸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잠실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가려는데 불췌 민준이 나타났다.

"같이 점심식사하러 가자"

헤원은 내심 기분이 좋았다.

"오늘도 점심값 벌었네"하며 알뜰하게 웃었다.

"너 사람이 속으로 병들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니?"

식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오며 민준은 이렇게 물어 왔다.

헤원은 관심 없다는 듯 간단히 대답했다.

"그야 진찰받고 소변검사 해 보면 되지. 싱겁게서!"

"그게 아니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눈치였

다. 민준의 표정은 헤원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머리에 병이 들면 자기가 병들은 줄을 몰라. 결국 모든 것이 지난 어느 순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 되었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말이야"

순간 헤원에게 민준의 모습은 조그만 시인의 모습이었다.

"헤원아! 난 할까한 시인이 될거야"

민준과 헤원이 발걸음을 옮기는 해파리 위에는 하늘로 솟아오르는 불행카드가 불뚱처럼 치고 있었다.

"람보에게 침탈당한 아리랑을 되찾자"

조 옹 준

(사회대 사회학과)

다. 민준의 표정은 헤원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머리에 병이 들면 자기가 병들은 줄을 몰라. 결국 모든 것이 지난 어느 순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 되었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말이야"

순간 헤원에게 민준의 모습은 조그만 시인의 모습이었다.

"헤원아! 난 할까한 시인이 될거야"

민준과 헤원이 발걸음을 옮기는 해파리 위에는 하늘로 솟아오르는 불행카드가 불뚱처럼 치고 있었다.

"람보에게 침탈당한 아리랑을 되찾자"

조 옹 준

(사회대 사회학과)

다. 민준의 표정은 헤원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머리에 병이 들면 자기가 병들은 줄을 몰라. 결국 모든 것이 지난 어느 순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 되었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말이야"

순간 헤원에게 민준의 모습은 조그만 시인의 모습이었다.

"헤원아! 난 할까한 시인이 될거야"

민준과 헤원이 발걸음을 옮기는 해파리 위에는 하늘로 솟아오르는 불행카드가 불뚱처럼 치고 있었다.

"람보에게 침탈당한 아리랑을 되찾자"

조 옹 준

(사회대 사회학과)

다. 민준의 표정은 헤원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머리에 병이 들면 자기가 병들은 줄을 몰라. 결국 모든 것이 지난 어느 순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 되었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말이야"

순간 헤원에게 민준의 모습은 조그만 시인의 모습이었다.

새기며 미소 띤 얼굴로 민준을 돌아봤다.

"민준이 작품전 보러갈래?"

문득 집히는 데가 있었다.

헤원은 한 자 한 자 쓰여진 작품 속에서 미숙하다기 보다는 감동이 우러나왔다. 밤을 새우며 열심히 자기일에 몰두하여 하나의 완제품을 낸 친구들의 정성어린 모습들이 떠올랐다.

깃뚫기만 귀여운 투로 민준을 돌아보며 말했다.

"어때 이런 병들지 않은 대학문화라 할 수 있겠나?"

"내가 언제 대학문화가 병들었다고 그랬나? 그리고 난 문화가 될지도 몰라"

눈썹에 힘을 주며 이야기하는 민준의 표정 속에서 헤원은 무엇인가 동감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한 잔 적으로 갈까?"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민준을 보고 이기공룡들이라 생각하자 헤원은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애는 술먹는 것이 대학생이 할 일이나? 교장에게 연극이나 감상해야지"

"헤원아 너 자꾸 사람 놀리면 점점 코가 길어진다네 거 몰라"

"그건 거짓말이지 괴노키오 얘기지"

한바탕 웃음 속에 이야기하는 민준이었다.

"나도 문화를 모른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하지만 어릴때가 그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인 것이다. 열심히 살고 끊임없이 자신의 발전을 생각하고 생활하는 모습이 모여 문화를 이루는 것이다"

헤원은 이런 자신의 생각이 민준을 닮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실지는 않았다.

"헤원아! 시인은 멋있어."

동면지 같이 민준이 이야기했다.

"무엇인가 열심히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힘은 고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야.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가 가지있는 것은 그 안에 고통속에 이룬 진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듯이 바로 그렇게 살고자 생활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고민하는 모습이 싫지 않은 것은 바른 생활문화라는 보석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야"

순간 헤원에게 민준의 모습은 조그만 시인의 모습이었다.

"헤원아! 난 할까한 시인이 될거야"

민준과 헤원이 발걸음을 옮기는 해파리 위에는 하늘로 솟아오르는 불행카드가 불뚱처럼 치고 있었다.

"람보에게 침탈당한 아리랑을 되찾자"

조 옹 준

(사회대 사회학과)

다. 민준의 표정은 헤원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머리에 병이 들면 자기가 병들은 줄을 몰라. 결국 모든 것이 지난 어느 순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 되었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말이야"

순간 헤원에게 민준의 모습은 조그만 시인의 모습이었다.

"헤원아! 난 할까한 시인이 될거야"

민준과 헤원이 발걸음을 옮기는 해파리 위에는 하늘로 솟아오르는 불행카드가 불뚱처럼 치고 있었다.

"람보에게 침탈당한 아리랑을 되찾자"

조 옹 준

(사회대 사회학과)

다. 민준의 표정은 헤원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머리에 병이 들면 자기가 병들은 줄을 몰라. 결국 모든 것이 지난 어느 순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 되었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말이야"

순간 헤원에게 민준의 모습은 조그만 시인의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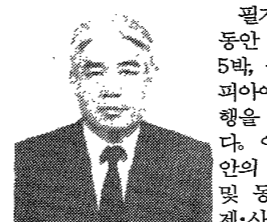
"헤원아! 난 할까한 시인이 될거야"



모스크바의 오작교

錢昌源

(경성대학교수·무역학)



필자는 여름방학 동안 모스크바에서 5박,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4박의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 이 짧은 기간 동안의 경험한 소련 및 동구의 정치·경제·사회제도에 대하여 전부를 논평하기는 어렵지만 여행중에 보고, 느낀 점 몇가지만 피력할까 한다.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하여 짐을 기다리는 데 한 시간이 지나서야 찾을 수 있었고, 입국절차를 밟는데도 다른 자본주의 국가보다 오랜시간이 소요되었다. 모스크바을 탐방 당시의 선술이었던 이스타이브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시설규모는 컸으나 내부시설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여행가 이더는 모스크바 국제대학 한국어과를 졸업한 소련인이었는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말했고 자기는 KGB요원이 아니라고 몇 번씩이나 되풀이 해 말했다. 우리가 TV에서 보던 크레믈린궁 앞의 붉은 광장에 가 보니 레닌묘가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볐다. 레닌묘 앞에 늘어선 사람들을 보니 이미 스탈린은 격하되었으나 아직도 레닌은 소련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명소마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만날 수 있었으나 북한 사람들은 그다지 볼 수 없었다.

레닌 묘사면에 가보니 장사나 열람할 규모에 있어서 국제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한국 관련 도서도 2만권 이상이나 소장하고 있었다. 모스크바대학을 방문하여 대강당, 그리고 25층에 있는 지리연구소를 가 보았는데 규모도 크고 자료도 많이 소장하고 있었다. 모스크바 대학의 국제부장이 나와서 모스크바대학의 국제교류에 관하여 브리핑하였는데 이미 연세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고 학생교류도 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도 학문교류를 할 예정이라고 들려주어 동국대학교 교수로서 부러웠다.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교포의 친목단체인

고려인협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한·소외교섭과 경제교류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으며, 특히 在蘇 3세대들이 서울을 탐방경기를 보고 한국인임을 자랑하고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하여 반가웠다.

모스크바에는 북한인이 경영하는 평양집과 고려인(소련교포 2세)이 경영하는 오작교가 있었다. 마린 평양집이 휴업중이어서 교포와 함께 오작교로 갔다. 한국음식의 종류라고는 고추, 마늘이 들어있지 않은 불고기, 양배추로 만든 불고기, 만두 등 3종류뿐이었다. 음식점 주인이 나와서 식당을 오작교라고 불린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칠일칠살 전우와 적년의 만남을 위해 검은 까치가 오작교를 만든 것처럼 남한인과 북한인이 한국음식점 오작교에서 만나 서로 친숙해 지고 남북통일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뜻에서 음식점 이름을 오작교라고 지었다고 한다.

모스크바 시내에는 미국의 뉴욕에서와 같이 몸에 문신을 한 히피족들이 기타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현상은 페레스트로이카와 더불어 미국 자본주의의 단점이 먼저 들어온것이었으며 크가라, 맥도날드, 햄버거가 진출한 나라는 미국화한다는 말을 실증하는 것같았다.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농장에 가보니 시설과 농민들의 주택(아파트)은 잘 되어 있었는 데 이곳은 해외 홍보용으로 지은 것처럼 보였다. 이 밖에 베이링광장도 가보니 생산시설은 그다지 근대화되지 있지 않았고 노동자 휴게소의 마당에는 의자와 비둘기장안이 있었을 뿐이었다.

모스크바를 떠나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 가보니 학생들의 민주화 열기가 환상이었다(농성중).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넘어 오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한 것처럼 보였다. 필자가 느낀 소감은 정치는 민주주의로, 생산은 자본주의 방식으로, 본래는 사회주의 방식을 채택하는 새로운 체제가 나왔으면 사회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의 모순을 타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생활속의 민족의학

술이 깬 후 머리가 아플때는...

건강한 생활에 대한 바람, 병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를 인간에게는 당연한 욕구이다. 이러한 보건문제와 근원적인 해결은 생활상 태도부터 일어난 결과를 구제하는 데 있지 않고, 그 근본이 되는 경제적·사회적 및 물리적 조건을 제거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조상의 오랜 경험과 술기의 축적된 민족의학은 왜 그 존재가 아득하기만 한가? 그것은 전통적 사회구조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해왔던 고유 전통의학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국민의 의료의 역할을 담당케 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서구적 의사의 의료방식이 기독교의 선교를 위한 의료사업의 형태로 시작되면서 전

통민족의학정신을 되돌아보고 그 독특한 사회의사학과 탁월한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의술의 광란의 의의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가 흔히 겪는 피로움의 간단한 치료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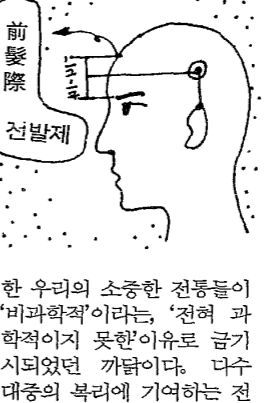
醉谷(술곡)·숙후 두통 취성 후유 두통

술 마신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아플때 술곡(醉谷)穴을 양 엄지 손가락으로 3분에서 5분간 지그시 눌러 주면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醉谷(술곡)穴... 取穴要領(취혈요령)

피앗(귀 윗쪽)의 直上에서 1.5寸(약3cm)에서 醉谷穴을 찾을 수 있다.

(민족의학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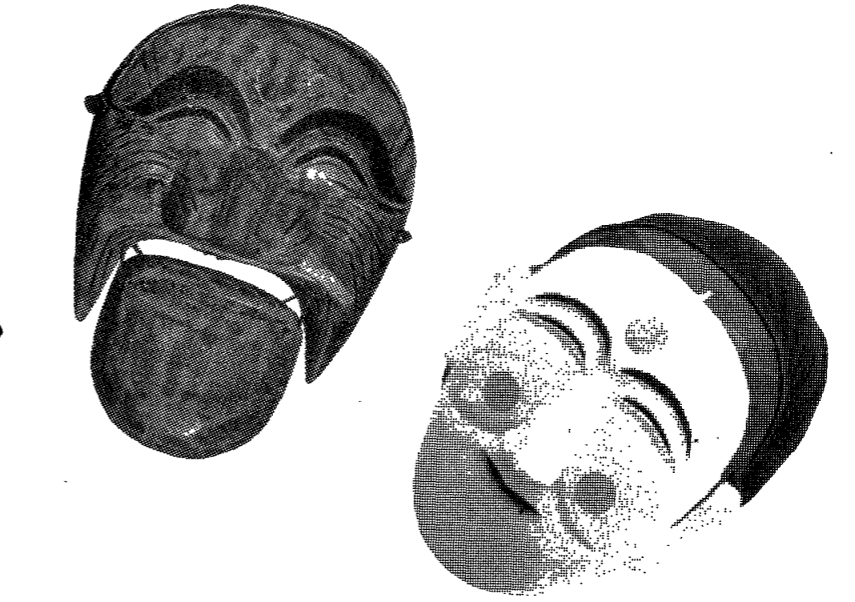


더 좋은 내일을 위해 OB맥주



OB맥주 공장건강 안내
여러분의 공장 방문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세계 각국의 진귀한 맥주 관련 용품들을 전시해 놓은 맥주전시관, 다이나믹한 영상의 멀티비전 등을 관람하게 되며, 맥주제조 공정을 살펴보신 후, 무료로 제공되는 갖가지 신선한 OB맥주를 시음하게 됩니다.
■ 연락처: OB맥주 소비자보호과
전화: (02) 752-2626

들러보면 밝은 모습들 만나보면 좋은 사람들
사람들이 좋나



대학생 작품 공모

OB맥주가 젊음의 눈에 비친 훈훈한 얘기, 따뜻한 모습들을 찾습니다.

아무리 기계문명이 발달하고, 배급주의가 팽배해도 우리들 마음 속에 맥맥히 흐르는 따뜻한 인정, 풍성한 인간미마저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집 근처에서, 거리에서, 고향에서 여러분의 눈에 비친 내 이웃들의 훈훈한 얘기와 모습들을 글로 또는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들려주는 얘기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해 줄 것입니다.

가 1990년 11월 30일까지
내 '사람들이 좋다'에 대한 시, 수필, 풍토 또는 흑백/컬러 사진
보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두산빌딩 18층 OB맥주 마케팅부 (우편번호 100-109)
심 OB가 위촉한 전문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
시 당선 1편(100만원 상당의 오디오) 1편 2편(50만원 상당의 오디오) 1편 3편(30만원 상당의 오디오)
참 참가자 전원에게 OB의 기념품 증정
발 1991년 3월 31일 대학신문에 발표

부속경주병원 예산확보등 문제로 개원 '진통'

34억원 예산확보 시급

실습차질·이자부담등 갈수록 '눈덩이'

동국의료원 운영위원회가 잇따른 회의에도 불구하고 부속 경주병원의 개원시기 및 예산확보 방안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표류함으로써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2시 申國柱(중장) 吳國根(서울부총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자협의회의 의사에서 열린 이날 제11차 운영위는 부속 경주병원의 개원시기와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 소식을 접한

경주캠퍼스 의과대 학생들은 수업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한의대 학생들은 지난 6일부터 제3병원 부지확보, 교과과정 재편 인정, 학술교류 적극 협조등을 요구하며 한의대 학장실을 점거농성 중이다.

경주병원의 개원에는 토목건축비, 의료기기비, 병원운영비, 기타비등 총 21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토목건축비는 총 1백24억 36억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83억원이 미집행된 상태이며, 의료기기비는 총 53억여

원중 23억원만이 지급, 나머지 30억여원이 미집행된 상태이다. 그러나 의료기기비 31억을 리스차관으로 구입한다 할지라도 병원운영비 총 58억원과 간판등 기타시설비 9366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상태로 토목건축, 의료기기등 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질적 예산은 어렵잡자 34억 9천6백만원정도만 개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원이 계속 지연됨으로써 스의대본과생 임상실습차

질 △K·F·X차관 이자부담 △건물운영비 소요 △병원에 대한 경주지역사회의 실망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 총장선거로 인한 총장과 제단은 무관심에서 벗어나 개원에 필요한 강력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기구 감사 진통

자료미비·인식부족으로 일정 차질

‘학생자치기구 1학기통산감사’가 대총감사특별위원회로 지난 18일 졸업준비위원회를 시작으로 오늘(19일)로 12일째를 맞고 있으나 계속되는 감사연기 감사주체불참, 자료미비등 감사에 대한 인식부족과 감사시행체적마련등이 지적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대, 문과대, 경상대, 사회대, 사범대, 예술대, 동아리연합회등이 감사연기와 재감사가 실시되는등 감사일정을 10여일이나 늦기고 있다.

지난 10일 있었던 법과대감사는 공약사업이행여부, 예산지출등에 관해 정상과파대지출이

지적됐다.

또, 11일에 있었던 사회대, 이과대감사는 3차에 걸친 재감사결과와 사회대는 감사무산, 자료미비등의 이유로 2학기예산 오는 10월 21일까지 전면중지당하는 중정계를 받았으며, 이과대는 조직체적미흡, 운영과 집행부의 상호연계부족이 지적됐다.

한편 경상대는 지난 17일 경상대대의원총회와 파총회를 열어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문제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있기는 하나 감사에 대한 인식부족등의 문제점을 들어 예산의 무기한 중지조치를 받았다.

법대, 단대 최초 시험기간 재설정 교수·학생 합의... 폐지이후 문제점 지적

88년 학자부 합의사항이후 학습의욕고취를 위해 시험기간이 폐지된 이후 다시 효과적인 학습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법과대 학생회(회장=허병철·법4)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법과대 교학과에서 11개 단과대중 최초로 법과대 교과위원회(회장=延基)와 시험기간설정을 합의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시험기간은 중간고사가 10월 셋째주, 기말고사가 11월 넷째주로 그 기간 동안 수업은 하지않고 수업 시간대로 준하여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런 시험기간설정은 지난달 16일 중앙교과위와 학교측 시험기간설정에 관한 합의사항인 ‘시험기간 설정은 단과대학장의 제청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취해졌다.

한편 법과대 학생회의 1학기 설문조사에서는 70%의 학생들이 시험기간(전공과목에 한함)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었다.

행선재 장학금지급

동아리 연구분과 소속인 행선재(行璣齋)는 졸업동문 후원으로 장학기금을 마련, 회원중 행정고시와 시험에 합격한 재학생들에게 올해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5일 오후 5시 동국관(L213)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행정고시 1차시험에 합격한 김범중(행정·3) 김영희(행정·사) 공동 2명에게 각 1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회원들에게는 금일정을 전달했다.

교수회, 동국인 의지 총화시켜야

인터뷰 총장선출 대임말은 2인

제12대 교수직선 총장선거를 한달남짓 남겨둔 현재 교수·직원·학생간의 3자연석 회의를 통한 선거준비가 한창이다. 향간에서는 ‘이번 선거가 기성 선거관을 뺀정도로 왜색화·동맹화되며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이번 선거가 제12대 총장선거가 아니라 제13대 총장선거에 관한 유권해석상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즉 총장선거제도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 충돌이 맞물리고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이 통과된 이후 재단에서는 이번 선거와 관련, 확실한 임명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총장선거는 대학 전 구성원의 이해와 요구가 결된 하나의 축제임에 분명하다. 이를 민주적 방법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교수회의 임명들을 서울·경주교수회 총회장과 선관위위원장으로부터 들어본다.

서울·경주교수회 총회장 金長好교수

—교수·학생·학교당국이 참여하는 각 위원회 구조의 활성화 방안과 최고의결기구로서 교수회의 장기적 대학발전 수립 계획은

—선출된지 한달여 밖에 안되는 동안 총장선출문제로 바빠서 구체적 방안은 아직 없다. 그러나 각 단과대학장 취임 하에 단과별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대학자치제 실시를 신임 총장에게 강력히 제안하고 계속적인 연구를 해 나가겠다.

—이번 총장선거에서 2인의 후보가 선출된 후, 명백한 사유없이 2순위자가 선출되거나 제3의 인물이 선출될 경우 이에 대한 교수회 대처방안은

—현행 사립학교법상 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진행중에 학내의 총의가 모아진 것을 재단이 무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소신을 갖고 일을 추진하면 으레겠 된다는 확신에 매진하겠다.

—지난해 총장선거무산이후 나타난 교수사회의 분열양상을

—선출된지 한달여 밖에 안되는 동안 총장선출문제로 바빠서 구체적 방안은 아직 없다. 그러나 각 단과대학장 취임 하에 단과별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대학자치제 실시를 신임 총장에게 강력히 제안하고 계속적인 연구를 해 나가겠다.

—이번 총장선거에서 2인의 후보가 선출된 후, 명백한 사유없이 2순위자가 선출되거나 제3의 인물이 선출될 경우 이에 대한 교수회 대처방안은

—현행 사립학교법상 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진행중에 학내의 총의가 모아진 것을 재단이 무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 본다.

—이번 교수회의가 개정되어 이따금 위법여부가 지적됐는데 교수회장으로서는 소견은

—이런 회칙개정은 규정개정안 제3조 내용중 회칙개정이 인사총회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 위법논란이 있었던것은 사실이나 동회칙 제11조를 보면 인사총회는 서울·경주캠퍼스별로 각각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는 명백히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총회장으로서는 총장선거에 임하는결의는

—타대학이 철단과학·인문학



본교 정상화를 위해 최선다해 단과대 자치제로 대학발전 모색

학의 눈부신 성과를 거두는 가운데 유독 동국대만이 절름발이 일수는 없다. 지금 이시기가 백척간두에서 서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의 당면목표이래 매진하여 동국대를 본래도에 올려놓자는 데에 총의를 기울이겠다.

학의 눈부신 성과를 거두는 가운데 유독 동국대만이 절름발이 일수는 없다. 지금 이시기가 백척간두에서 서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의 당면목표이래 매진하여 동국대를 본래도에 올려놓자는 데에 총의를 기울이겠다.

총장선거 선관위원장 李璜雨교수

—이번 총장선거가 12대나 13대냐를 놓고 이에관한 유권해석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선관위의 공식전례는

—그것은 재단 소관이기에 문제가 선관위에서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 그러나 고려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상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3자연석회의를 바라보는 선관위의 입장은

—각 주제간 의견 협의를 통한 의사개진은 매우 바람직하고 민주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3자연석 합의된 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 선관위구성 자체가 교수회 산하의 비상설기구이므로 교수·직원·학생이 논의하는 3자연석회의의 논의 결과물은 당연히 선관위에 의해 준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교수총회의 투표를 거쳐 2인이 선출된후 재단측이 남득

—20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상태이후의 일이되겠지만 이에 대한 후보자적 심사는 지난해 교수회최종의 총장후보 선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오는 21일 2차 선관위회의때 결정하겠다. 지금 상황에서 공식적 입장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선거과정상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의사개진의 경로는

—지금 진행되는 3자연석회의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난해 총장선거 과정중 특히 많이 받았던 공청회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올해의 대처방안은

—지난해 선거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청회석상의 소견발표는 각 후보간의 인식공격같은 것이 있었다. 올해의 소견발표는 학교발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발표하는 것에만 국한되었을 것이다.

—20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상태이후의 일이되겠지만 이에 대한 후보자적 심사는 지난해 교수회최종의 총장후보 선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오는 21일 2차 선관위회의때 결정하겠다. 지금 상황에서 공식적 입장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선거과정상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의사개진의 경로는

—지금 진행되는 3자연석회의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난해 총장선거 과정중 특히 많이 받았던 공청회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올해의 대처방안은

—지난해 선거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청회석상의 소견발표는 각 후보간의 인식공격같은 것이 있었다. 올해의 소견발표는 학교발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발표하는 것에만 국한되었을 것이다.



3자 연석회의 결의 준수할 터

공청회는 정책대안 발표에 국한... 이번 선거가 3주제의 의견이 확고하게 하나로 결집된 만큼 재단측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기대된다.

—한약 이번 총장후보 등록 시 申國柱총장서리나 李璜雨前총장이 후보등록을 할 경우 이들의 후보자적 유무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공청회는 정책대안 발표에 국한... 이번 선거가 3주제의 의견이 확고하게 하나로 결집된 만큼 재단측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기대된다.

—한약 이번 총장후보 등록 시 申國柱총장서리나 李璜雨前총장이 후보등록을 할 경우 이들의 후보자적 유무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공청회는 정책대안 발표에 국한... 이번 선거가 3주제의 의견이 확고하게 하나로 결집된 만큼 재단측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기대된다.

—한약 이번 총장후보 등록 시 申國柱총장서리나 李璜雨前총장이 후보등록을 할 경우 이들의 후보자적 유무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농학연대’

지난 14일부터 제원, 제천농민회와 농대 학생회주최로 혜화관 앞에서 고추를 판매하고 있다.

농학연대는 어렵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활속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글·사진) 김영란 기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제11회 아시아 경기대회 ‘남북한 공동운동원단’ 구성을 위한 범민족대회 남북대표단회담이 대한적십자사의 허을중은 궤변으로 막혀버렸다.

“창구단일화” 원칙에 입각, “남북교류금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 문제 이외의 정치적 논쟁사항이 있는것은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는 궤변이 그것인데... 그렇다면 교위급회담서 정

인재(?)는 기다리는 것

○·나라가 온통 물벼락을 뒤집어 써서 요즘 파편 ‘천재(?)는 기대하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 65년만의 대총수라는 이번 물난리는 과연 불공회에게 걸맞게 국민들을 폭우에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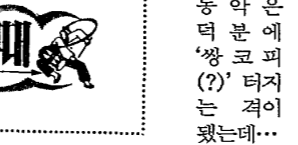
별 별게 해.

마른 하늘 아래서도 집 한 칸 마련할 돈이 없어서 산으로

남산골 동약 ‘쌍코피’

○·서울시의 ‘남산제초목’ 찾기계획이 폭압적이고 의제주의적인 잔재들을 해소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이

로 인해 남산골 동약은 딱 분 에 ‘쌍 코 피(?)’ 터지는 격이 됐는데...



대흥수를 통해 본 세상만사 - “천재(?)는 드물지만 인재(?)는 기다리는 것”

부가 밝힌 경제적·인적교류는 ‘빛 좋은 개살구’란 애근대... 이에 본 회전문대주 “통신·통상·통행”의 다양한 교류를 하겠다며 민간교류인들은 창구단일화를 하겠다는 정부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민족동포애조차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올라갔던 부실공사로 인한 축대붕괴 사고로 아레로 밀려 내버려 지하 단칸방에서 새들이 살던 또 이번과 같은 물난리 겪는 등 좌충우돌의 연속...

돈 가진들만 살고 있는 늪은 이리저리 채이거만 하는 세상에서 본 회전문대주 “천재(?)는 어쩔수없이 적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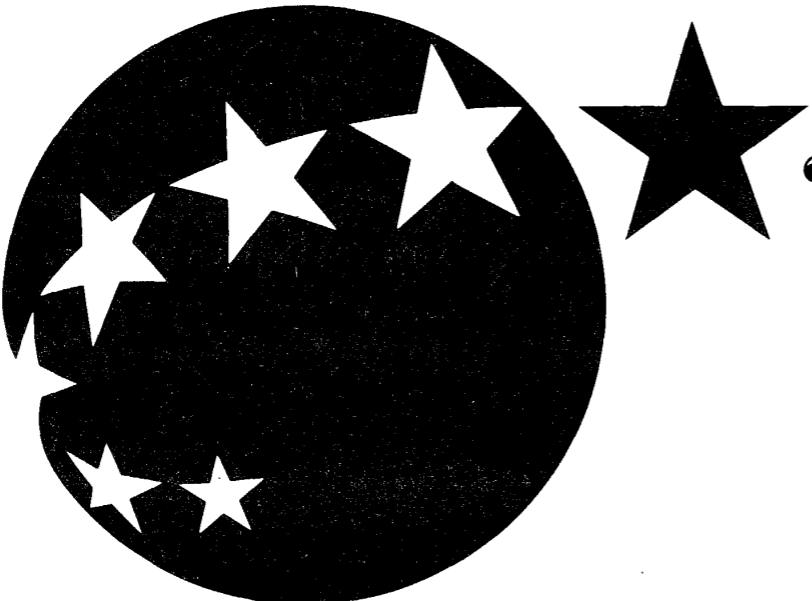
사실인 즉, 지난해부터 이 어겨져서 올 9월에 착공키로 했던 동국관1층 증축문제가 이번 남산제개발계획으로 공사허가를 못받아 도로아미타불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기존의 건물들도 모두 철거를 당하려는 마당에 그래도 ‘학포’라는 특수상황을 고려, 그나마 철거당하지 않는

한다.

시골 고추 재값에 못사게 하는 노가리×× 때이내자라는 구호가 등장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묵은 고추도 재값에 못사게하는 노가리××는 아마도 색고 병든 ××라며 某학우 -하.

세계로, 미래로



“기업은 무엇보다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

현재현

동양그룹은 이런회사입니다.

- 1. 「기업은 곧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기업**
동양그룹의 인본주의 경영은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 국민과 사회에 대한 봉사, 나아가 인류의 복리후생이라는 경영이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 2. 창의와 혁신을 존중하는 기업**
동양그룹은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창조와 혁신의 기회를 보다 많이 누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 3. 자율과 책임이 형평을 이루는 기업**



동양그룹은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되는 분권화시대의 요구에 따라 자율과 책임이 형평을 이루는 새로운 기업풍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 미래는 이렇게 전개해 갔습니다.

동양그룹은 가전사업의 확장을 통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며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유통, 서비스산업 그리고 선진 금융기법의 습득을 통해 국제적인 금융그룹으로서의 면모도 갖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양그룹은 전위적인 생각을 지닌 젊은이들과 함께 동양의 미래를 설계해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